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악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
술마시고 분수를 잃지 말며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9월 2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1호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새 행정수반으로 선출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취임법회가 11월 1일 서울 조계사 일원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법회서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어 불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사부대중 화합에 진력할 것을 천명했다. 사진은 법회 참석 대중과 삼귀의례를 하고 있는 설정 스님의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독화살 공방 멈추고 一佛弟子 긍지 가꾸자"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공식 취임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새 행정수반으로 선출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스님은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어 불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사부대중 화합에 진력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은 11월 1일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취임법회를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의장 종하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교역직 종무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소임자,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의원, 김희중 대주교,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각 신행 · 포교단체장, 불자 등 약 1만 명이 운집해 설정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강창일 국회의원은 사전에 설정 스님을 예방했다.

법회에서 설정 스님은 가장 먼저 부처님전에 헌화하며 새 행정수반으로서 종단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종하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설정 스님의 취임을 경하하노니, 종단의 대화합과 종풍의 선양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총무원장스님은 종단내의 갈등과 분열을 참회와 포용으로 섭수해 원융화합의 길로 나아가 새로운 천년불교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숲이 무성해질 때 새들도 날아오고 온갖 산짐승들이 돌아와서 원래의 자연생태계로 복원되듯이 조계종단도 수행과 청정이라는 선(禪)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종단이 국민들과 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신심 · 원력 · 공심을 바탕으로 자비와 지혜를 세상에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는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신도숫자 감소라는 통계보다는 종도들이, 불교인들이 불제자로서 자부심을 갖지 못해 방황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독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제 우리는 독화살의 공방을 멈추고 다 같은 일불제자(一佛弟子)로서 긍지를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화합 · 단결하지 않는 집안은 힘을 잃게 된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과 불찰에서 비롯됐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선거과정뿐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로 갈등했던 분들과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하겠다. 무엇보다도 대탕평 정책을 펼쳐 종도들이 환희작약(歡喜雀躍)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1월 1일 조계사 일원서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취임법회 전경.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11월 1일 서울 조계사 일원
각계 인사 등 1만 대중 운집
진제 종정 "원융화합의 길로"

우정국로 불자에게 직접 나서
'無時禪 無處禪' 짧은 당부도

각계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설정 스님은 경허 · 만공 스님의 선맥을 이어받아 평생 수행에 전념한 선승이시자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며 불교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등 이사무애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동안 쌓아온 높고 두터운 경륜은 종단발전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계가 더욱 화합하고 융성하는 토대가 되리라 믿는다"며 "한국불교는 우리사회 아픔을 가장 먼저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파사현정, 뭇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비행의 불교정신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나라다운 나라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 '인생은 정성을 다해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없고, 나의 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정진하라' 는 스님의 가르침은 간결하면서도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쉽게 말씀해준다고 생각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사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종단개혁으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고희를 넘기셨음에도 종단 중책을 맡고자 하심에는 큰 뜻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것이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 나는 불교' 라고 생각한다. 큰 뜻을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와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설정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불교의 새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되길 기원했다.

이후 대중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간절한 신심과 원력과 공심으로 사회 곳곳의 아픔을 함께하고 상처받은 이웃의 손을 굳게 잡아 한국불교가 뭇 생명들과 아름다운 수행공동체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 직후 설정 스님은 우정국로에 모인 불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무대에 오른 설정 스님은 '무시선 무처선(無時禪 無處禪)' 을 강조한 뒤 "참선 · 주력 · 염불 등으로 마음을 바꾸면 그곳에 지혜와 용기, 자비와 무한한 관용이 있단 걸 꼭 알아야 한다"면서 "신심 · 원력 · 공심이 없는 불제자는 불제자라고 할 수 없다.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수행하는 불제자가 되자"고 목소리 높였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태고종 '특별사면' 단행
종정 혜초 스님 사면령

멸빈 등 징계자 모두 복권
내년 1월 29일까지 접수

태고종이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태고종은 10월 13일 태고종정 혜초 스님이 내린 '특별사면령' 에 의거해 징계자 복권을 선언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9월 28일 봉행된 제26대 태고종 총무원장 이 · 취임 법회에서 내린 '종정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에 즈음한 유시' 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로 1970년 태고종 창종 이래 2016년까지 종단으로부터 각급 징계(멸빈, 제적, 공권정지, 법계강등 등)를 받아 자격이 제한된 모든 태고종도가 일제사면됐다.

종정 혜초 스님은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시대상황 속에서 종단이 한국불교 전통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도 화합과 종력의 결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종단 집행부의 출범을 계기로 흩어진 종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단 총화(總和)를 실현, 종단 새 질서를 창출하고자 일제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10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3개월간 복적(復籍) 신청을 받는다.

복적 대상은 △1970년 태고종 창종 이후 2016년 말까지 이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 종단에 이적했거나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승려의 자격이 제한된 피징계자 △2014년도 사찰등록증 갱신 및 승려분한 신고 불이행으로 사찰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승적이 정적된 상태에 있는 자 등이다.

대상자는 △복적 신청서(소정양식) 1부 △구(舊) 사찰등록증 및 승적부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증명사진 4장 △소정의 복적 수수료를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사승 또는 제자)을 통해 총무원 또는 해당 교구 종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26대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특별사면령' 과 관련 10월 25일 담화문을 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증오와 불신을 화합의 용광로에 용해시켜 공존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총무원장으로서 한 알의 밀알과 한 줌의 소금이 되겠다. 종단 발전에 함께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⑮ 세 권의 책

스님이 내게 一讀 권한 책들

법정 스님께서 내게 권하는 책은 3권이었다. 첫 번째의 책은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법정 스님께서 '영혼의 모음' 이란 제목으로 어린 왕자에게 띄우는 편지를 쓰셨을 정도로 가까이하셨던 책이었다. 스님은 〈어린 왕자〉를 스무 번도 더 읽어 책장을 훌훌 넘기기만 해도 그 세계가 넘어다보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어린 왕자가 여섯 개의 별나라 여행을 통해서 현대인의 비인간화를 고발한 동화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내재율의 울림이 큰 철학적인 장시(長詩)라는 느낌이 문득 들었다. 프랑스 생텍쥐페리 재단의 후원을 받아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어린 왕자 특별전' 을 다녀와서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어쨌든 어린 왕자는 지구별로 돌아와 사막에서 만난 여우에게 '내 비밀을 알려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



일러스트 · 정윤경

의 구도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서사구조이다. 아래 글은 법정 스님이 어린 왕자에게 띄우는 편지글 일부이다.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다. 밤하늘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인다. 방울처럼 울려올 네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혼자서 웃음을 머금는다. 이런 나를 곁에서 이상히 여긴다면, 네가 가르쳐준 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네." (중략)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물이 고여 있어서 그렇듯이.'

두 번째 책은 문명을 버리고 자연으로 귀의한 소로우의 〈숲속의 생〉. 일본어판을 소장하고 계시던 스님께서 어느 날 내게 샘터사에서 출판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셨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숲속의 생〉을 발간해보라고 당부하셨다. 일본어판을 번역하는 책이므로 중역(重譯)인 셈. 그런데 중역이 얼마나 위험한 번역인지 그때 알았다. 이호중 화가의 표지화를 받아 정성들여 편집했지만 내용이 문제였다. 영역판과 차이가 났고 독자의 항의편지가 날아왔다. 부끄러웠다. 그래서 편집회의를 한 끝에 절판시켰다.

세 번째는 민족사학자 신채호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신채호전집〉. 어느 날 스님께서 내게 그 〈신채호전집〉을 미국여행 가는 지묵 스님에게 주어버렸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지묵 스님에게 "어머니가 문둥이여도 버려서는 안 되듯이, 내 나라가 아무리 썩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십여 년 뒤 〈신채호평전〉을 구해 읽었는데, 선생이 이순신 전기를 한말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나도 〈이순신의 7년〉이란 대하소설을 집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강의평가 공개 원칙… 교수법 개발 투자도"

Interview | 이준원 금강대 제6대 총장

"금강대가 15년간 추구해온 인재상은 대학교육의 모범사례입니다. 소수정예, 그리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어느 대학보다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최근 학교가 시끄러웠던 건 개교 이후 몸집은 커졌지만 시스템이 과거에 머물렀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강대는 사람으로 치면 골격을 갖추는 청소년기입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과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때입니다."

천태종립 금강대 신임총장에 이준원 前공주시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금강대는 10월 30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92차 이사회를 열고, 이준원(53 · 사진) 前공주시장을 제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4년간.

이준원 총장의 취임은 '막말파문' 과 '독단적 운영 논란' 을 빚은 한광수 前총장의 사퇴 이후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기에 어느 때보다 눈길을 끈다. 새로 취임한 이 총장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신뢰가 무너진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화합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본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가장 먼저 이 총장은 금강대가 개교 이후 슬로건으로 내세운 '소수정예교육' 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의 장학금 지원과 소수정예교육으로 학생들이 부처님 정신을 갖고 사회 각 분야에 자리를 틀어 자비심을 베풀어나가도록 돕는 건 모범적인 대학운영 사례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근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바람에 가치가 퇴색된 느낌도 든다. 초심으로 돌아가 개교 30주년을 준비할 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1~2년 단위로 학제가 바뀌어온 금강대 운영방식에 우려를 표하면서 "총장 취임 전 금강대에 대해 알아보니 짧은 기간에 학제개편이 빈번하다는 걸 알게 됐다. 학생

11월 1일부터 4년간 임기
공주시장 · 한일고교장 역임
"소수정예 슬로건 계승하며
구성원 갈등 최우선 해결"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수조차도 혼란을 겪게 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강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당분간 학제개편 전략보다는 15년간 느슨해진 부분을 정비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본지가 취재하며 제기한 '2016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결과서 '효과적인 교수활동 인식' 부문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수법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총장은 "교수 역할을 강의와 연구, 사회봉사 등 3가지로 꼽는데 현재 금강대는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구조인 것 같다. 결국 강의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된다"면서 "신진학자들을 강의전담교원으로 확보하고, 전임교수들이 강의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학교 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추가한 '학부 학생만족도 설문조사' 와 관련해 모든 문항을 불만족으로 답해도 교수가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뿐만 아니라 행정운영, 연구, 강의 등 전 방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고쳐나가겠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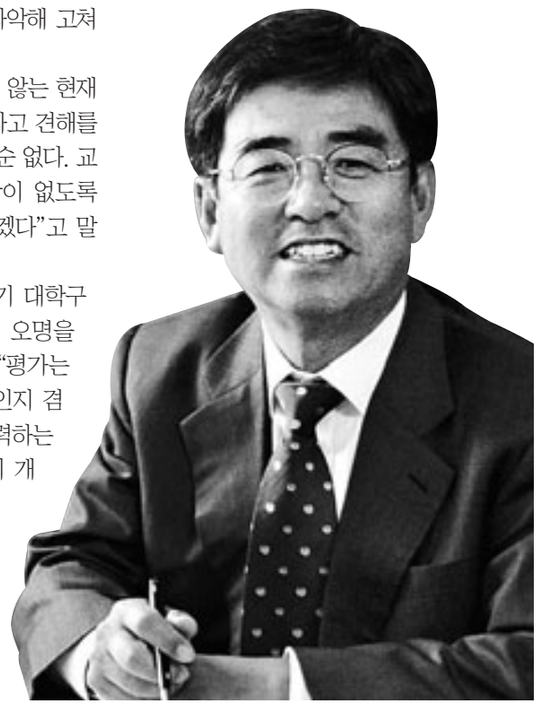
또한 강의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현재 시스템에 대해 "대원칙은 공개"라고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교수 · 전문가 토론을 거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해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내년 시행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1주기 D등급의 오명을 씻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그는 "평가는 결과보다 무엇이 강점이고 단점인지 겸허히 받아들여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평가방법의 개선, 평가대상의 노력이 잘 어우러져 금강대 이미지 쇄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980년대 대학입학부터 2006년 공주시장 당선까지 대학생 · 대학원생 · 조교 · 교수 등을 거치며 교정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밝힌 이 총장은 "언젠가는 대학관리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인연이 닿아 금강대 총장으로 부임한 만큼 열정을 다해 멋진 꽃이 피도록 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준원 총장은 1987년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 · 박사를 받았다. 공주대 부교수와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공주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제6~7대 공주시장, 한일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원행 · 현호 · 일면 스님 원로의원 추천

조계종 제209회 중앙종회 정기회 개원
종정감사특위 구성 후 휴회… 8일 속개

조계종 원로회의 새 의원으로 원행(월정사) · 현호(송광사) · 일면(봉선사)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제209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첫 안건으로 원로의원 추천의 건을 이 같이 결의했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세 스님은 종헌종법에 따라 향후 열리는 원로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원행 스님은 1970년 월정사서 희찬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호계원 초심호계위원, 삼화사 · 구룡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호 스님은 1960년 상백운암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 법련사 주지를 역임했다.

일면 스님은 1964년과 1967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장, 호계원장, 봉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과 광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앙종회는 원로의원 추천에 이어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총무분과위원장인 범해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휴회하고, 8일 속개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의사일정은 △종헌 개정의 건(멸빈자 사면 · 원로의장 임기 단축) △종법 제 · 개정의 건(원로회의법 개정안 · 사면법 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초심호계위원 선출 △법규위원 선출 △소청심사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불기2562(2018)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제8기 법계위원 위촉 동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문화재사찰 도로명칭 삭제 중지 촉구 성명서 채택 △기타사항이 진행된다.

한편 지난 8월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율원대표로 당선된 원명 스님은 교육분과위원회에 배정됐다.

윤호섭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70호 A2면 〈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재논의되나〉 기사 내용 중 봉선사 밀운 스님을 **일면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조계종 새 집행부 기획특보 우봉 스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기획특별보좌관에 우봉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설정 스님은 10월 31일 기획특보 우봉 스님, 사서국장 원정 스님, 수행사서 혜광 스님을 임명하고 "매사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특보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했다. 영랑사 · 문수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과 호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서국장 원정 스님은 수암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및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수행사서 혜광 스님은 철안 스님을 은사로 1998년 수계하고 동국대를 졸업했다.

윤호섭 기자

2017년 (재)백련불교문화재단 학술대회

봉암사결사 70주년, 해인총림 50주년 기념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의 정체성

【 개 회 】 개회사 :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축 사 : 설정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격려사 : 향적 스님(해인사 주지)

【 제1주제 】 제 목 : 봉암사 결사의 배경과 불교사적 의미
발표자 : 이종수(순천대 사학과)

【 제2주제 】 제 목 : 해인총림 결성의 배경과 현재적 의의
– 퇴옹성철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자 : 조기룡(동국대 불교학술원)

【 제3주제 】 제 목 : 근 · 현대불교에서 퇴옹성철의 역할과 백일법문의 위치
발표자 : 서재영(불광연구원)

【 제4주제 】 제 목 : 퇴옹성철의 선문헌 번역사업의 내용과 의의
발표자 : 박인석(동국대 불교학술원)

【 제5주제 】 제 목 : 퇴옹성철의 대중포교 내용과 불교사적 의의
발표자 : 최원섭(동국대)

【 제6주제 】 제 목 : 성철의 교외별전
– 성철의 "거짓말"에 속아야 할까, 속지 말아야 할까?
발표자 : 변희욱(서울대 철학사상연구원)

종합토론 : 최연식(동국대 사학과)

■ 일시 : 2017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
■ 주관 : 백련불교문화재단

【 문의 】 백련불교문화재단 _ 02-2198-5372, 5373

도봉서원서 고려 영국사 혜거국사비 발굴

불교문화재硏, 10월 27일 발굴 현장 설명회

탁본만 전해 실물 발굴 처음
비편 문자 256자 해독 성공
영국사 위치 · 창건 시기 확인
혜거국사 동명이인 존재 찾아

폐사된 사찰 위에 건립된 도봉서원터에서 탁본 일부만 전해졌던 영국사 혜거국사비의 비편이 불교계 문화재 발굴기관에 의해 발굴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과 도봉구청(청장 이동진)은 "문화재청의 허가로 조사하고 있는 서울 도봉서원 하층 발굴 현장에서 영국사 혜거국사비의 비편이 발견됐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 현장 설명회를 열고 발굴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발굴된 영국사 혜거국사비 비편은 길이 62㎝, 폭 52㎝, 두께 20㎝로 총 281자가 새겨져 있다. 연구소는 이중 256자를 해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혜거국사비는 선조의 아들이며 서화가인 이우가 편찬한 금석문 탁본집인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1668)〉에 88자의 비문만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발굴과 판독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됐다.

비석 첫 머리 쓰인 '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 는 지금까지 '영동지륵산영국사' 로 잘못 알려졌던 혜거국사비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영국사 혜거국사(慧炬)가 갈양사 혜거국사(惠居, 고려 최초의 국사)와 동일인물로 혼용돼 왔으나 동시대를 함께한 동명이인인 것도 명확해졌다.

또한, 고려 시대 하층유구에서 확인되는 통일신라의 기와(중판선문 기와)와 건물지 기단으로 보아 영국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됐음이 확인됐다.

혜거 국사는 고려 전기 법안종풍을 일으킨 10세기 유학승으로 고려 시대 광종이 불교를 개혁하고 선교 양종(禪敎兩宗)을 통합하고자 도입했던 법안종을 고려에 처음으로 전파한 승려로 추정된다. 그리고 법안종을 만든 초조 법안문익(885~958)의 제자이며 적연국사 영준(932~1014)의 스승이다. 또한, 송나라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국왕이 유학 중인 스님에게 사신을 보내어 예로서 맞이하였던 왕사였으며, 위봉루에서 설법한 사실도 전하고 있다.

도봉서원은 선조 6년(1573년) 조광조(1482~1519)를 추존하기 위해 옛 영국사(寧國寺)의 터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던 곳으로, 임진왜란때 불탔다가 1608년 중건된 후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폐원됐다. 헐어내기까지 약 260여 년간 유지되었던 서원이다. 지금은 서울특별시기념물 제28호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진행된 발굴조사 중 도봉서원이 영국사의 일부 건물과 기단을 재활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중심 건물지에서 고려 시대 금속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제 금강저와 금강령을 비롯하여 국보급 청동 불교용구가 77점이 출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봉서원 발굴 조사 중 출토된 '영국사 혜거국사비' 의 비편. 탁본으로만 확인됐던 혜거국사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왼쪽 첫 번째) 등 각계 원로들이 한반도 비핵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 "한반도 전쟁 NO!"

도법 · 법륜 스님 등 24명 국회서 시국선언

북-미 갈등이 고조되고 한반도 내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도법 · 법륜 스님, 전운찬 前국무총리 등 24인의 각 분야 원로들이 한반도 비핵 평화와 전쟁방지를 기원하며 11월 2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하고,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가공할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할 때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모두가 합심해서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위해 행동할 때"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개발 즉각 중단 및 조건 없는 대화 협력 △미국의 군사행동 자제 및 대화 위한 노력 △정부의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을 설득하고 강제할 외교 역량 발휘 △국회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와 전쟁반대 결의안' 채택 △시민사회의 한반도 전쟁방지 및 평화체제 구축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김대선 前원불교 평양교구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등 종교계 11명을 비롯해 김홍신 소설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이사장 등 시민사회계 8명과 김원기 · 임채정 · 정의화 前국회의장, 정운찬 前국무총리, 신경식 前대한민국헌정회장의 정치계 5명 등 총 24인의 원로들이 이름을 올렸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사부대중 함께 건강한 불교를"

자승 스님 퇴임식서 감사인사 · 소회 밝혀

조계종 제33 · 34대 집행부를 이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무원 · 불자들에게 차기 집행부와 더 건강한 불교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 퇴임식에서 "앞으로 35대 집행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 중앙종회, 신도회 조직 등 사부대중이 함께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퇴임사를 밝혔다.〈사진〉

자승 스님은 우선 임기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춘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을 비롯해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등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주위에서 시원섭섭하지 않은지 묻는데 시원하지만 섭섭한 건 없다. 33 · 34대 집행부를 도운 것처럼 협심해서 더 건강하고, 국민이 원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역직 종무원과 중앙신도회, 일반직 종무원들은 자승 스님에게 송별사를 전하며 아쉬움을 표하고, 성실한 종무수행과 정진을 다짐했다.

교역직 종무원은 재무국장 우하 스님이 대표 낭독한 송별사를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 · 지도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마주치는 인연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고, 갈등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서로 아끼고 칭찬하면서 아름다운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각급 종무기관에서 자승 스님에게 송별선물을 전달했으며, 이석기 前의원의 누나인 이경진 씨가 꽃다발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대표들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자승 스님의 퇴임을 축하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급 승가고시 수석 혜용 · 우석 스님

조계종 교육원 결과 발표



혜용 스님



우석 스님

조계종 1급 승가고시 수석에 前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비구), 교육아사리 우석 스님(비구니)이 차지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10월 27~28일 경기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2017년도 1급 및 2급 승가고시' 를 시행했다. 올해 1급 승가고시에는 총 62명이 응시(비구 37명, 비구니 25명)해 전원 합격했다. 혜용 스님(백양사)이 비구 수석, 우석 스님(마곡사)이 비구니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

1급 고시 비구 수석 혜용 스님은 경기 안성 대원사 주지로 올해 8월까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비구니 수석 우석 스님은 충남 아산 옥련암 총무 소임을 맡고 있으며, 종단 교육아사리이기도 하다.

2급 승가고시에는 총 74명이 응시(비구 40명, 비구니 34명)하여 총 74명의 스님이 합격하였다. 비구 수석에 원학 스님(해인사), 비구니 수석에 혜일 스님(화엄사)이 이름을 올렸다. 수석 합격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은 오는 11월 2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관음종, 일제강점기 징용희생자 위령제

日 사찰 찾아 희생자 위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1월 6일부터 3박4일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영골 환국사업 일환으로 일본 동경소재 사찰을 방문, 일련종 본문사에 봉안된 희생자 위패 앞에서 추모위령제를 봉행한다.

관음종은 6일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을 예방하고, 7일 정토종 · 천태종 · 임제종 대본산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했다. 관음종은 이어 9일 일련종 대본산 본문사에서 일제강점기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들을 위한 추모기도도 올린다.

김주일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일 주 문



교육콘텐츠부문 대학 대상 수상

보광 동국대 총장 스님은 10월 26일 서울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7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에서 교육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태고종 총무원 홍보부장 임명

혜철 옥천 대성사 주지 스님은 10월 31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홍보부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종 교육원 부·국장 인사 잇달아

교육부장 진광 스님 · 불학연구소장 대안 스님
불학硏 사무국장 서현 스님



진광 스님



대안 스님



서현 스님

조계종 교육원 부 · 국장 인사가 잇달아 단행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서 신임 교육부장 진광 스님, 불학연구소장 대안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국장 스님으로 소임을 다해준 진광 스님이 부장이 돼 낯설지 않고 큰 힘이 된다. 함께 상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1월 1일 신임 불학연구소장 사무국장에 서현 스님을 임명했다. 신성민 기자

임제불교조계종 창종10주년 법회



임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동일)은 10월 26일 횡성 향천사에서 '종단 창종 10주년 및 제3대 총무원장 동일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대한불교합일승가회 회장 법민 스님, 법안조계종 종정 오봉 스님, 태고종 前 총무원장 도산 스님,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제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동일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정진 또 정진해 국가발전 기여"

Interview

김상규 공불련 제11대 회장

10월 28일 만장일치 추대
월례법회 · 참선법회 등 도입
공부모임 활성화 기치 내걸어

김상규 제10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이 10월 28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1대 공불련 회장에 추대됐다.

김 회장은 "각 기관불자회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 더욱 정진하고 신심을 깊이 하여 공불련 발전을 이끌겠다"며 "이 발전이 나라 발전이 되며, 자리이타행이 부처님 불국토 완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규 회장은 2016년부터 10대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했다. 김 회장은 공부하는 불자, 신심 넘치는 공불련을 강조하며 조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갔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월례법회는 그 상징. 월례법회 마다 300여 공무원 불자들이 모여 함께 수행하며 신심을 증장시켰다. 하반기 창립법회와 함께 10월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법사로 공불련 사상 최초로 참선법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1년 동안의 임기동안 많은 것을 추진했기에 김 회장의 재임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김 회장은 "전임 9대가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해 1년의 잔여임기를 채우고 다시 2년을 시작하려 한다"며 "보통 4년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2년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 공무원 차관 급의 임기가 2년을 가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 주위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위기에 대한 처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정신의 위기가 더 심각한 이 때에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정 스님으로부터 '청백가풍직사형칭두불허창승좌'란 글귀를 선물 받은 적 있다는 김상규 회장은 조계종 집행부와의 원할한 소통도 다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취임은 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에 하는 일도 변할 것이 없다. 각 부처별 공부모임을 활성화하고 법회를 문화행사로 꾸며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규 제11대 공불련 회장은 제28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조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7월 공불련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매월 조계사에서 정기법회를 여는 등 공무원의 신행생활을 이끌어 왔다. 노덕현 기자

"평화통일 기원 희망씨앗 되길"

통일발원 만행길 오른 통도사 前 부주지 재원 스님



"평화 통일을 위해 걷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는 그날 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前 부주지 재원 스님〈사진〉이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만행길에 올랐다. 재원 스님은 11월 1일 통도사 대웅전 금강계단과 해장보각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에서 재원 스님은 "작은 시작이 씨앗이 되어 맺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며 사부대중 앞에서 맹세한다"며 "만행길이 끝까지 회향 되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묵묵히 거북이처럼 걷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재원 스님은 통도사 산문 앞에서 출발해 울산과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바닷길을 따라 총 700km를 걷는다. 기간은 한 달을 예상하며 12월 1일 강원도 통일전망대에서 회향할 예정이다.

스님은 "나이가 69세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원력인데 이룰 수 있어 행복하다"며 "동해안 길을 마치면 서해 그리고 다른 루트로 모색해 통일 발원 걷기 운동을 지속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이후 대중들과 모임도 구성해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원 스님은 동국대와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대구에서 마하사 주지로 활동했으며 직지사 포교국장, 통도사 교무국장, 통도사 전 부주지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 시문학 풍부해지는 계기

〈불교시문학 상 · 중 · 하〉 출판기념 법회 봉행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한국전쟁기념관 내 뮤지엄 홀에서 한국불교 최초로 3권으로 구성된 〈불교시문학 전집〉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기념회서는 도서헌정에 이어 한국불교 예술대학 해사 스님과 제자들이 승무로 법회를 장엄했다.

금강선원 이사장 혜성 스님은 경과보고와 인사말을 통해 3년 여에 걸친 자료수집과 분류, 그리고 편집을 맡아주신 편찬위원들께 감사를 표했다.

혜성 스님은 "내용적으로 한국불교를 보다 풍부하게 만든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이는 한국불교 시문학의 또 다른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3권의 불교시문학 전서 중 상권은 화엄경 게송이 담겼다. 모든 게송은 한문원문과 함께 한글 음이 달렸다. 이와 함께 우리말 해설도 함께 달려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서는 두 저술이 합본된 민희식 교수의 〈유럽정신사〉와 서무선 법사의 〈자아탐구〉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원당암 중앙절 천도법회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28일 중앙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경내 원당에서 선망부모,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 원당암은 보광전에서 헌공의식 후 만년위패가 봉안된 원당에서 40여 년 전 前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이 주석할 때부터 무명영가의 천도를 축원하는 법회를 열어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해사 개산대재 및 작은음악회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0월 28일 대웅전에서 창건 1208주년 은해사 개산대재와 스마트 경북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산대재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박물관장 돈명 스님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과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천주교 대구대교구 경산성당 이창영 신부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 조사를 모신 다례재를 시작으로 개산 법요식과 보살계 만등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진안 쌍봉사 지역사회 나눔활동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거주할 곳이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가족이 생활하는 박찬국 씨의 집을 짓는 진안 사랑의 보금자리 4호 주택 건립에 동참했다. 10월 26일 건립기념식을 가진 진안군 동향면 사랑의 집 박찬국 씨 집은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관내 종교계와 개인 등이 후원금을 모아 이뤄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담 화 문

귀의삼보 하옵고,

종도여러분의 앞날에 지혜와 희망의 등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총무원장 취임식에 성력(誠力)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재의 실상은 종연생멸(從緣生滅)하는 까닭에 시절인연에 따라 소납이 총무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종단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생각할 때 실로 무거운 중압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종단은 전통적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찬란한 자존(自尊)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받드는 지혜로운 종도들의 역량이 내재되어 있어 종도들이 마음만 하나로 모은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용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 동안 이완(弛緩)되어진 종도의 애종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유기체적 수행 공동체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큰 틀에서 종도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종도의 여망과 종정예하의 하명(下命)을 받들어 창종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종단과 괴리(乖離)되어 왔던 종도들을 일괄 사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 종단의 부당한 처결(處決)로 인하여 종단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억울한 종도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종단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근본적인 화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장래 종단의 미래가 흔들릴 지도 모릅니다.

이번 종정예하의 일제사면(一齊赦免)을 계기로 종도 모두 흔연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여 하나 되는 화합 승가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유컨대 절대 다수 종도는 그 동안 쌓여온 적폐를 말끔히 청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종단을 정상화 하는 데는 하루 이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한 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도 각자의 성찰과 자기 갱신(更新)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적폐청산과 새 종단건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간도 자신과 관련된 모순(矛盾)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오직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와 오만은 대중을 분열시키고 독선과 아집은 집단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 집권자의 권위보다는 종도의 권익(權益)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사익보다는 종단의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증오와 불신을 화합의 용광로에 용해시켜, 공존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용기는 만용(蠻勇)과 편견(偏見)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을 따르고 소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납은 총무원장으로서 한 알의 밀알과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종도와 더불어 종단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는데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종도여러분 !

소납을 믿고 힘을 모아주시고 새로운 종단건설에 함께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기 2561(2017)년 11월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로터스월드와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는 10월 30일 캄보디아 시엠립 현지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운문교육관 제막식 모습.





안재훈 L-Beaty 원장이 교육생들의 네일 아트를 참석 내외빈에게 소개하고 있다.



운문교육관에서 성관 스님이 교육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새로 개관한 운문교육관에서 교육생들이 미용교육을 받고 있다.

'자비-Beauty'로 캄보디아에 희망 전하다

로터스월드, 10월 30일 희망미용센터 이전 개관

기쁨 나누는 실천회 법인 해산하며
1억여 원 기금, 로터스월드에 기증
신축 교육관·부속 건물 등 들어서
2011년부터 무상 미용교육 시작해
8기 교육 중… 졸업생 150명 배출
9개월 교육 수료하면 취업률 100%
자체숍 'L-Beauty' 운영하며 실습도
"미용교육으로 살아갈 힘 얻었어요"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의 캄보디아 청소년 직업 훈련소인 희망미용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로터스월드와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는 10월 30일 캄보디아 시엠립 현지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을 비롯해 아동센터 원장 지우 스님,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 상임이사 경륜·대구 보광사 주지 능견·증평 불정선원 주지 범일·양주 지장사 주지 종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시엠립 분관장 박승규 총영사, 시엠립 주정부 인사와 미용센터 학생과 졸업생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건립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건립에는 운문사 승가대학 28기 도반 모임인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의 역할이 컸다. 이제 시절 인연이 다해 법인을 해산하게 된 실천회는 2016년 남은 자산을 뜻 깊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키로 결의했다. 이후 사업 공모를 통해 로터스월드의 제안서가 채택돼 한화 1억여 원을 기증해 새로운 미용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사업 채택 후에는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됐다. 로터스월드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마련해 둔 시엠립 시내 부지(364평)에 건축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고,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운문교육관 신축공사, 주변 정리 및 조경공사가 약 8개월 동안 이뤄졌다.

새롭게 건립된 로터스월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은 80평 규모의 신축 운문교육관과 40평 규모의 부속 건물 1동으로 이뤄져 있다. 운문교육관은 로터스월드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L-Beauty' 헤어숍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과 미용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속동에는 사무실과 한국인 미용교사용 관사, 게스트룸이 들어섰다.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꿔라"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은 미용센터 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를 교육을 통해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중퇴하고 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냈고, 자신이 창업한 기업에서 쫓겨나는 수모도 겪었다"고 예를 들며, "어려움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곳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행복의 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청소년 나누는 기쁨 실천회 상임이사 경륜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승가대학 도반끼리 어려운 청소년을 돕고자 창립한 법인이 시절 인연을 다해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로터스월드 희망미용센터 건립을 지원했다"면서 "오늘 새로운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희망미용센터를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훈련, 삶을 바꾸는 계기

로터스월드의 이번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개관은 시엠립 지역 청소년 직업 훈련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1년 시작한 희망미용센터는 시엠립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용기술을 무상으로 교육함으로서,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인 자체 헤어숍 'L-Beaty'를 창업·운영하며, 실습과 취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매 기수마다 20~25명을 모집해 9개월간 교육을 진행하며, 현재는 8기가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150여 명이 수료했고, 모두 일선에서 활동 중이다.

안재훈 L-Beaty 원장은 "매 기수가 졸업할 때 헤어쇼를 하는데 지역 헤어숍 원장들이 참석해 졸업생을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 한다. 취업률 100%를 자랑한다"며 "캄보디아인은 미용에 자신의 월급 20%를 사용할 정도로 미용에 관심이 많다. 그 만큼 캄보디아 미용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미용 기술을 배울 경우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로터스월드를 통해 한국의 미용 기술을 배운 학생들은 하나 같이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센터 2기 졸업 후 L-Beaty에 취업해 6년동안 일하고 있는 매니져 돗 소페아(24) 씨다. 어릴 때부터 헤어디자이너를 꿈꿨지만, 돈도 정보도 없던 그는 로터스월드 희망미용센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됐다.

자신을 "로터스월드가 제공하는 무상 교육프로그램의 최고 수혜자"라고 밝힌 소페아 씨는 "그 시절 나는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로터스월드가 제공한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8기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렝 티나(20) 씨는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티나 씨 역시 헤어디자이너가 꿈이었지만, 가정 형편과 정보 부족으로 꿈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하지만, 로터스월드에서 교육을 받고 부터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다.

티나 씨는 "센터에 온 날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즐겁다"면서 "많이 공부하고 경험해 언젠가는 개인 헤어숍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시엠립=신성민 기자

"작은 후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Interview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시엠립 시내 한복판 우리 부지에 현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센터가 새롭게 개관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10월 30일 로터스월드 희망미용센터 운문교육관 개관식 마친 이사장 성관 스님〈사진〉은 현지에서 가진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소감을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로터스월드가 2011년부터 시작한 미용희망센터 사업은 BWC아동센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공부 편차가 있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미용기술을 배워 취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엠립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까지 수용했다.

처음에는 초기비용 등 재정적 어려움도 많았지만, 2013년 자체 헤어숍인 'L-Beauty'를 운영하는 등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립도가 마련됐다. 향후에는 L-Beauty의 고급화를 추진해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도 계획 중이다. 또한 선배들이 발전해 후배들을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교육생을 배출하는 순환 구조를 마련할 복안도 갖고 있다.

"보통 미용기술은 10년 이상을 연마해야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교육생들이 발전해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 후배들이 다시 후배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아가 교육생들이 자신의 가게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장차 추진할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미용센터 교육생들처럼 조그만 관심과 지원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한테는 적은 돈의 후원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부대중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에게 한번만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밝히는 어른으로 자라주세요"

(사)세상을 향기롭게, 10월 28일 로터스월드에 기증식

십시일반으로 자전거 450대 보시
통학 어렵던 인근 학생들에 전달

집이 멀어 통학의 어려움을 겪던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통학을 도울 수 있는 자전거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세상을 향기롭게(이사장 정여)는 10월 28일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의 캄보디아 시엠립 BWC아동센터에서 자전거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을 비롯해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여여선원 해운대포교당 주지 도우 스님, 효심사 주지 효문 스님, 보현선원 주지 효범 스님, 금강암 총무 도산 스님과 신도 대중이 참석했다, 또한 림톳 캄보디아 사회복지부 차관과 차이관랍 부차관 등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학교가 많지 않은 시엠립 지역에는 통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실제 도보로 왕복 2시간을 걸어야 학교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적지 않아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사)세상을 향기롭게는 지난 2016년부터 로터스월드를 통해 시엠립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전달해왔다.

올해에는 자전거 450대 전달과 집 2채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고, 로터스월드는 지역 청소년 중 자전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시엠립 지역 사회복지부와 협의해 450명을 선발했다.

이날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해 부처님은 '세상의 많은 이익과 행복을 위해 살 때 삶의 가치가 있다' 고 설하셨다"면서 "오늘 자전거를 받은 학생들은 세상이 이익되고 향기롭게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상을 향기롭게는 10월 28일 로터스월드의 캄보디아 시엠립 BWC아동센터에서 자전거 기증식을 개최했다. 기증받은 자전거 앞에서 지역 학생들과 스님들이 환하게 웃어보이고 있다.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집이 멀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마음을 내어 자전거 700대를 기증해 지역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림톳 사회복지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자전거를 받은 학생들은 이 나라를 이끌 꿈나무들"이라면서 "자전거를 깨끗이,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자전거를 선물 받은 아이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을 대표해 감사 편지를 낭독한 산 스레이 니웃(16, 중학교 9학년)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증식에 참석한 히빌라(13, 중학교 7년)는 "오늘 기증 받은 자전거는 제 인생의 첫 자전거"라면서 "오늘 스님께 큰 선물을 받았다.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캄보디아 시엠립=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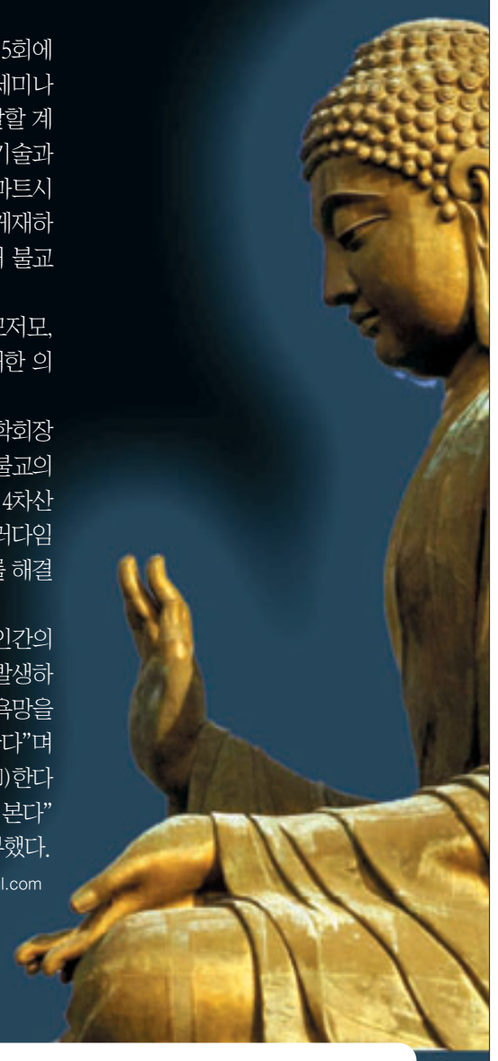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
국제학술세미나
불교와 4차산업
12월 2일~3일

한국불교학회 '4차 산업' 話頭로

① 인공지능 · 로봇기술과 불교
② 4차산업 시대, 불교 포교
③ IOT · 스마트시티 기술과 불교
④ 특별대담 '4차 산업 시대 속 불교'
⑤ 국제학술세미나 현장

12월 2일 10시30분 동국대 중강당 개막
5개주제, 4차 산업과 접합점 모색
50여 학자, 분야별 다양한 논문 발표
학회장 성운 스님 "새 패러다임 제시"





최근 개봉한 영화 〈블레이드러너〉의 저자 필립 K. 딕의 원작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에는 미래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이 나온다.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동식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된 지구에서는 대부분이 기계다. 겉보기에 인간, 동물과 다를바 없는 기계로 인해 인간사회는 교란이 일어난다.

1968년 필립 K.딕이 상상한 세계와 제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는 현재는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알파고로 촉발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대두까지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의 주요한 가치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온 불교사상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하는 가치관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는 더욱 뜻깊다.

한국불교학회(학회장 성운)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동국대 중강당, 만해관과 다향관에서 '불교와 4차산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Iot 및 스마트시티 기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 등 최근 대두되는 4차산업 기술 전반에 대한 불교사상적 접근이 눈길을 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5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시대 진단 토론회로 진행된다.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로봇, 수명을 연장하는 의 · 생명과학기술은 첨단 기술이 활약하는 미래 사회를 예고하며 인간의 노동력 상실, 부(富) · 수명의 양극화라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때문에 휴머니즘을 우선적으로 보는 인문학적 가치관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완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문학적 가치관의 중심에는 바로 불교사상이 있다.

한국불교학회는 이런 필요성에 3월부터 7월까지 5차(AI, IOT, Robot, Smart City, AR/VR)에 걸쳐 워크샵을 열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왔다.

본지는 한국불교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총 5회에 걸쳐 사전 지상세미나 및 대담을 개최하며, 세미나 당일 현장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3주간 △인공지능 · 로봇기술과 불교 △4차산업 시대, 불교 포교 △IOT · 스마트시티 기술과 불교를 주제로 주요 논문을 정리해 게재하며, 4주차 국내 석학 4명을 초청, 4차 산업 시대 불교 미래를 진단하는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5주차 닫는 마당으로는 세미나 현장 및 이모저모, 세미나에 참여한 해외 석학들의 불교사상에 대한 의견을 함께 실을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은 "4차산업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불교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불교는 4차산업의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전법포교로 인간의 고통과 고뇌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빈부 격차 심화, 대량 실업, 인간의 가치 하락 등 4차산업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불교의 철학을 통하여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며 "불교와 4차산업의 기술이 상입상즉(相入相卽)한다면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이라고 관련 연구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학회의 이번 국제 학술대회 〈불교와 4차산업〉의 제1주제는 'AI 로봇과 인간사회'다. 이 섹션에서는 AI(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 현황에 맞추어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 및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Chapter 1 인공지능 로봇도 해탈 가능한가?

한성자 교수(태국 실파콘 대학)의 '인공지능(AI) 로봇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불교적 고찰'은 박성환의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을 원작으로 하는 김지운 감독의 〈천상의 피조물〉에서 제기되었던 '인공지능이 해탈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관해 불교교리에 기반하여 해석하는 흥미로운 논문이다.

〈천상의 피조물〉은 2011년에 제작된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 〈인류멸망보고서〉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서, 사찰의 청소, 안내 등의 목적으로 구입된 인공지능 탑재형의 로봇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그리는 문제작이다.

이 논문은 우선 인공지능이 종류와 그에 따른 학습 체계의 차이를 구분하고, 인공지능의 자의식과 자의적인 판단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후에 영화 〈천상의 피조물〉에서 깨달음을 얻은 로봇을 붓다로서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각각의 논리와 감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로봇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와 '인간과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선입견을 드러낸다.

한성자 교수의 논문은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진화 혹은 오류를 일으켜서 일어날 수 있는 '해탈'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등장을 통해서 중생 혹은 유정이라는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2 인공지능 상용화, 불교는 어떻게 볼까?

자현 스님(중앙승가대)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로봇의 상용화와 불교적인 인간 이해-동아시아의 사유적인 특징과 선불교의 주관심을 중심으로'는 제목 그대로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되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논문이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로봇의 범주와 역할을 규정하고, 그것이 상용화되면서 나타나게 될 동서양의 변화와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인간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다룬다. 아울러 선불교의 모순긍정과 직관주의라는 세계관이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자현 스님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로 열 수 있는 사람은 역발상에 기초하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진 도전형 인간이며, 이들은 해답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자이며, 또 다른 문제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들이라고 역설한다. 또한 세계종교 중에서 불교만이 유일하게 인식주체를 강조하며, 역설을 논한 관점환기와 이곳에서의 행복을 주장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런 점에서 선불교는 인간의 궁극적 추구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현 스님은 결론적으로 선불교의 방식은 4차 산업시대의 도전형 인재가 등장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며, 이제까지 평가절하 되었던 동양의 정신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선불교를 통해서 세계로 구현될 수가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Chapter 3 인공지능 챗봇, 선문답 응용 가능한가?

보일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의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선문답의 응용가능성 연구'는 인공지능의 보다 창조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논문이다.

챗봇(chat bot)이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채팅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메신저를 결합한 기술이 활용되고, 최근에는 목소리(voice bot)를 활용한 기술도 상용화되고 있다.

보일 스님은 상담챗봇에 주목하는 이유로서 (1) 기술적 답변과 데이터의 제시와 같은 비즈니스 상담챗봇의 경우와 달리 심리치료 또는 상담용 챗봇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정답도출형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 (2) 현재의 챗봇으로는 개별 인가들의 실제 대화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분명해진다는 점, (3) 향후 상담챗봇에 대해서는 은유를 통한 해법제시와 같이 다양한 알고리듬의 개발여지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일 스님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인공지능 챗봇의 선문답에서의 응용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작업이며, 향후에도 논의가 활성화된 소지가 많은 주제이다. 이에 관해서 보일 스님은 구체적인 선문답 응용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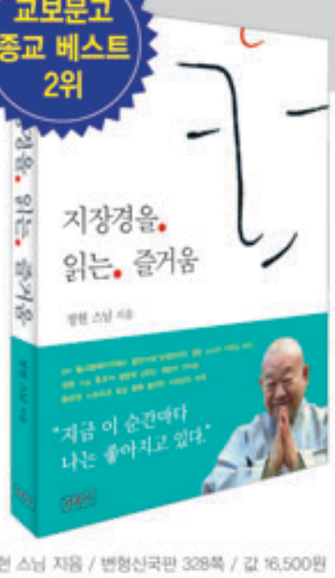
보일 스님은 인공지능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인공지능 챗봇의 실용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문답이 갖는 파격성과 그 형식을 벗어나는 논법을 응용하면 새로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한다.

"지금 이 순간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BTN(불교텔레비전)에서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정현 스님의 지장경 강의
정현 스님 특유의 생명력 넘치는 희망의 언어로 쓴 지장경의 세계!



교보문고 종교 베스트 2위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

정해진 업도 소멸시켜 지옥을 극락으로 변화시키는 신통 묘용의 지장경!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정현 스님 지음 / 변형신국판 328쪽 / 값 16,500원

설악무산(雪嶽霧山) 큰스님 추천사

"지장보살의 대비구제 원력을 앞장서 실천하는 스님이 있다. '한국의 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철원 심원사 정현 스님이다. 이 책은 불교텔레비전에서 정현 스님이 강의한 거룩하고 훌륭한 설법을 엮은 것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입에서는 향기가 나고 귀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찌 기쁜 마음으로 찬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계좌 농협 053-02-109450 윤재승(민족사)

동학사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수행 이야기!!

동학사 승가대학에서 40여 년 동안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일초 스님(승가대학원장)과
학인들이 주고받은 편지 모음집!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 스님 지음 / 국판 292쪽 / 14,500원

일초 스님
현재 룬감마아사리, 동학사 승가대학원장 및 화엄학림 학장으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전법에 힘쓰고 있다.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

하늘 내린 단풍 속 찾은 '참 나'

참불선원 명상힐링캠프 백담사 만해마을서 열려


참불선원이 주관한 명상힐링캠프에 참가한 스님과 재가자들이 가부좌를 틀고 실참하는 모습.

스님 · 재가자 300여 명 동참
초기불교 · 간화선 통합 명상
'참 나' 찾기 위한 집중 실참

"깨치려는 그 마음이 욕심이어서 깨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뿐.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이 뭣고?"

단풍 절정을 맞은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 30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모여들었다. 올바른 명상법을 배우고 진정한 '참 나'를 찾기 위해서다. 바로 참불선원이 주관하는 명상힐링캠프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10월 26~29일 만해마을 일원서 3박4일간 초기불교 · 간화선 통합명상을 지도하는 명상힐링캠프를 개최했다.

행사 둘째 날인 27일 방문한 만해마을 금강관은 고요했다. 명상실참의 시간. 대중을 지도하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소강당에 울려 퍼졌다.

"나는 존재하는데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뭣고."

캠프에 참가한 대중은 가부좌를 튼 채 두 눈을 감고 화두를 참구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잡념에 간혹 고개를 가로젓는 이도 있었다.

각산 스님은 "집안문제, 사업문제와 같은 내 인생문제들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건 기회다. 내면의 소리가 일어난다"며 "그냥 물어봐라. 그런 다음 멈추라. 그리고 이 숨 쉬는 걸 지켜보는 놈이 무엇인지 보라"고 조언했다.

30분간의 실참이 끝나고 대중은 경행에 나섰다. 울긋불긋 물든 산 아래서 일렬로 차분하게 걷는 이들의 표정은 맑았다. 한 차례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엔 각산 스님이 붓다의 명상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했다. 스님은 명상 단계를 △마음관찰 △호흡관찰 △호흡 전체보기 △감미로운 호흡 △마음의 보름달-니미따 체험 △선정 △지혜 △열반으로 구분했다.

각산 스님은 "지금 이 순간과 현재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호흡을 이끌면 황홀경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오감이 느껴지지 않고 무아지경의 상태가 찾아온다"며 "육신을 가진 채로 육신 없는 체험을 한다. 오로지 절대평온의 고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복의 '아는 마음'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설명이 끝난 뒤 대중은 다시 명상에 잠겼다. 이들의 스케줄은 명상, 또 명상이었다. 쉴 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내려놓음으로써 범부에서 성자의 종성을 확인하고자 매진했다.

참불선원 수석부회장 금현 보살은 "가장 가을다운 곳에서 수행다운 수행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행 열기가 더욱 높아져 속세와 떨어진 채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면서 "때로는 고요함 속에 참회의 눈물이 흘렀고, 때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머리와 몸으로 이해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자는 아니지만 명상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한 참가자는 "단순히 관심만으로는 명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참 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지원했다"며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었다. 아등바등하는 문제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3박4일간 대중을 지도한 각산 스님은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불교계에서 이를 충족시킬 만큼 대규모의 행사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초기불교와 간화선을 중심으로 불교명상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인제 만해마을=윤호섭 기자

무소유 정신 아이들에게 알려요

맑고향기롭게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회가 열렸다. 맑고향기롭게는 10월 29일 오전 1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에 앞서 맑고 향기롭게는 9월 24일 길상사 경내에서 100여 어린이가 참여한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박형준 동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홍용희 문학평론가, 함명춘 시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문과 산문 그리고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총 44명의 어린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맑고향기롭게 홍보대사인 가수 박창근 씨의 공연과 함께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의 환영인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또 김영배 성북문화재단 이사장의 축사와 박형준 교수의 심사 총평 및 무소유상 수상자에 대한 작품평가가 이어졌다. 시상식 후에는 무소유상 수상자 어린이 4명의 작품발표회도 진행됐다.

홍정근 맑고향기롭게 사무국장은 "무소유 글짓기 대회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내년에는 어린이날에 맞춰 글짓기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글짓기 대회 수상작은 월간 '맑고 향기롭게' 11월 및 12월 호에 수록된다. 노덕현 기자

동련 11월 25일 어린이지도자연수회

어린이청소년 포교신행단체 동련이 11월 25일과 26일 경주 황룡원에서 제36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인 명상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음악명상, 쉽게 만들어 활용하는 명상놀이 외에도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가 지휘하는 뉴트리팝스가 음악공연을 선보인다.

두 번째날에는 불국사에서의 아침예불과 함께 '불국사 비밀을 찾아서'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한편, 이날 연수회 입재식에서는 제4대 동련 이사장 이취임식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서산 부석사 108순례단 회향

서산 부석사(회주 주경)는 10월 21일 9년만에 108성지순례를 회향했다. 부석사 108성지순례단(단장 정옥남)이 부석사 설법전에서 개최한 회향법회에는 주경 스님과 주지 원우 스님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석사 108성지순례단은 2008년 9월 신도들의 정서함양과 신심고취를 위해 발족했다. 순례단은 송광사를 시작으로 법주사와 금산사, 봉정암, 보리암, 운문사 사리암, 선본사 갓바위 등 전국의 기도도량을 참배했다. 또 인도와 네팔, 라오스, 대만 불광사 등 해외 성지순례도 실시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청춘토크콘서트 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수)의 지역별 연합법회를 기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대불련은 11월 9일 고려대 4 · 18 기념관 소극장에서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청춘예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불교동아리 회원 및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인원은 약 1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청춘예찬 토크콘서트는 새로운 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불련 측은 "일반의 청년 대학생에게도 토크콘서트 참가를 개방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학내 불교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포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름다운동행 야행프로젝트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11월 1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은사까지 국내외 빈곤 아이들을 위한 '우리 함께 걸을까'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함께 걸을까'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위험을 예방하고,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열린 행사로 참가비 전액 아이들을 위한 교류기금으로 사용된다.

참가자들은 약 18km 정도의 거리를 4시간 가량 걸으며 나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승가대 실천승가융합연구소 꿈꾸는보리수 학인 스님들이 음성공양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대불련의 힘' 프로젝트 진행

진모영 감독, '올드 마린보이' 개봉 맞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이하 대불련 총동문회)는 동문인 진모영 영화감독의 '올드 마린보이' 개봉을 맞아 '대불련의 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진모영 감독은 전남대 89학번 대불련 동문으로 2014년 11월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연출해 다큐영화로는 드물게 전국에서 480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대불련 총동문회는 이 영화 후원을 위해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작비 후원 등을 진행했다. 진모영 감독은 2015년 '자랑스런 대불련인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진 감독의 새 영화 개봉에 맞춰 대불련의 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 지역 대불련 동문들이 나서 극장을 대관해 영화시사회를 개최한다.

춘천에서 10월 25일 춘천CGV 10관서 시사회가 진행됐으며, 10월 30일 마산 롯데시네마, 11월 3일 서울 용산CGV에서 시사회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진주와 부산 지역에서도 대불련의 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진모영 감독의 '올드 마린보이'는 탈북민 박명호 씨의 휴로서기를 다룬 영화로 하나뿐인 생명줄인 공기호스에 의지해 죽음을 각오한 머구리 작업에 나서는 명호 씨의 삶을 그렸다. 올드 마린보이는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컬처웨이브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불련 총동문회 측은 "올드마린보이 속 명호씨의 모습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 오늘도 생업 전선에 나서는 모든 아버지들의 자화상이다. 잠수 전 서로 못 볼 수도 있는 부자지간의 눈인사가 먹먹한 여운을 더한다"며 "진모영 감독을 꾸준히 후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하늘 위 · 아래에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⑧ 자유 향한 태자의 여정 ‘팔상탱’



석가모니부처님이 탄생하는 장면, 〈석가탄생도〉 조선전기 15세기 추정, 현재 일본 후쿠오카 본악사本岳寺 소장.



탄생 부처님을 목욕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는 장면, 도판01의 부분.

유사 이래, 어떤 영웅 또는 제왕의 일대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구현되었을까요? 팔상탱(또는 팔상도)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불화를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묘사한 것을 불전도(佛傳圖)라고 합니다. 불전도의 전통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현재까지 매우 유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행한 지역은 인도에서부터 중국, 한국, 일본에 이르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참으로 넓습니다.

싯타르타 태자의 ‘깨달음 여정’

부처님 열반 이후 약 500년 동안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부처님을 조성하지 않았기에 이를 ‘무불상시대(無佛像時代)’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신성시하여 함부로 묘사하지 않았고 또 무언가 상을 만들어 우상화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에도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형상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대중의 염원에 따라, 기원후 1세기부터 간다라 지방과 마투라 지방에서 각기 다른 양식의 부처님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간다라의 불전도는 탄생 · 성도 · 설법 · 열반의 네 가지 장면을 위주로 조성됩니다. 그 후 대승불교가 일어남에 따라 법신 · 보신 · 응신의 삼신(三身)의 불신설이 성립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는 여덟 장면의 팔상탱가 정립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전기 〈석보상절〉의 편찬을 계기로 팔상탱의 내용이 △도솔래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의 8폭으로 확립됩니다.

팔상탱의 첫 장면은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으로 마야부인이 태자를 잉태하는 태몽을 꾸는 장면입니다. 속세의 차원에서 보면 ‘마야부인의 꿈’으로 표현되지만, 법계의 차원에서 보면 ‘보살님이 중생구제를 위해 왕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의 제명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이란 뜻에서 ‘도솔래의상’입니다.

하얀 코끼리를 타고 마야부인의 태에 들어가시는 이 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모습으로, 세세생생 동안 공덕을 쌓아 도솔천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세상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태자로 몸 받아 나시게 됩니다.

팔상탱 두 번째 화폭은 ‘비람강생도’인데, ‘태자가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채색 불화의 비람강생도는 15세기 조선 전기의 작품인데, 안타깝게도 유출되어, 일본 후쿠오카 혼카쿠지(本岳寺)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전례 없이 아름다운 이 명작은 ‘석가탄생도’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야부인의 룸비니동산의 외출, 무우수(아쇼카 나무) 아래에서의 출산, 사방 칠보 걸음과 석가모니 최초의 사자후, 구룡 욕불(浴佛 또는 灌佛, 탄생불을 목욕시키는 의례), 정반왕의 친견 행차 등 싯타르타 태자의 탄생과 상서로운 징조가 한 폭에 장엄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 처음 나시어 잡는 것 없이 사방 일곱 걸음씩 걸으시니, 자연히 연꽃이 땅에서 올라와 발을 받들었다. 그리고 오른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사자의 목소리로 이르시되, ‘하늘위 하늘 아래 나만 홀로 높구나. 삼계가 다 수고로우니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하니, 곧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 대천 세계가 모두 밝았다.
>
> 〈석보상절(釋譜詳節)〉

금빛 몸체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사방으로 일곱 걸음씩 걸었고, 오른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아래에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의 사자후(獅子吼)를 외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첫 말씀이기에 이 문구의 의미는 자못 큽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설한 것은
육신 아닌 완전한 존재의 탄생
我는 ‘깨달음의 覺性’을 의미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상통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교는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를 말합니다. ‘무아’라면서, ‘나만 홀로 존귀하다’니요? 실제로 탄생게의 ‘아(我)’를 개체적 자아(自我)로 단정 짓고, 탄생과 관련한 다양한 상서로운 징조들을 시대적 윤색 또는 역사적 허구로 단정 짓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승적 관점에서의 불신관에서 본다면, 여기서 지칭하는 ‘아(我)’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아’와 같은 맥락입니다. 법신과 열반의 덕체(德體)로서의 ‘여여(如如)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다음에 연달아 나오는 문구는 “모든 세상이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三界皆苦我當安之)”입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淸淨法身) 또는 반야지혜(般若智慧)로서의 ‘내(我)’가, 그렇지 못한 번뇌와 무명 속의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탄생게’의 시원이 되는 역사적 석가모니의 생생한 증언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승불교의 전형적인 탄생게의 원형으로 지적되는 대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세상의 제일 앞이다. 나는 세상의 제일 위이다. 나는 세상의 최고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
> (팔리어本 〈대본경(마하빠다나-수따)〉)

> “천상과 천하에서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중생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제도하려 하노라. (중략) 마치 사자가 걸으면서 두루 사방을 살핌과 같이 땅에 떨어지자 일곱 걸음을 걸은 사람의 사자도 그러하였다. (중략) 양족존은 이 세상에 나오실 때에 고요하고 편안하게 일곱 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고 큰 소리로 외쳤나니 마땅히 나고 죽는 고통을 끊으리라.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날 때 짝할 이 없는 부처와 같고 스스로 나고 죽는 근본을 보아 이 몸은 마지막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
> (한역本 〈대본경〉)

또 깨달음을 얻고 녹야원으로 첫 설법을 가던 도중에 하신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 사문이 그의 안색에 광명이 넘치므로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너의 스승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니 부처님 대답하시길,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는 사람/ 무엇에도 더렵혀짐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애욕을 끊고 해탈한 사람/ 스스로 체득했거니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 하랴/ 나에게는 스승 없고, 같은 자 없으며/ 이 세상에 비길 자 없도다./ 나는 곧 성자요 최고의 스승/ 나 홀로 정각 이루어 고요하다./ 이제 법을 설하려 가니/ 어둠의 세상에 감로의 북을 울려라〈율장〉”라고 하셨답니다.

여기서 ‘나’란 ‘깨달음의 각성(覺性)’ 그 자체를 가르킨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완전하게 ‘자각(自覺)된 마음’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몸으로서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부처님 마지막 유언인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과 상통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진리)을 등불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 밖에 다른 그 무엇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즉, 부처님은 탄생 직후, 득도 직후, 입멸 직전의 중요한 시기 세 번에 걸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숫타니파타〉에는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나를 스스로 등불삼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나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불교상식

“석가모니” 부처님, 존명의 뜻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명은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ārtha)로 약 2,500년 전에 인도 북부 지방의 사캬(śākya) 부족의 태자로 태어났다. 사캬무니(śākyamuni)란 사캬 부족의 존경할 만 한 자 또는 성자라는 뜻이다. ‘사캬’ 족의 왕자가 ‘붓다’가 되었다하여, 존자(尊者, 높으신 분)라는 의미의 ‘무니’가 존칭으로 붙게 되었고, 이를 음사하여 석가모니(釋迦牟尼)가 된 것이다. 즉 석가모니, 석가세존(釋迦世尊) 또 이의 약칭으로서의 석존(釋尊), 모두 같은 의미이다. 사캬의 뜻은 ‘지극히 어질다’라는 뜻으로 능인(能仁)으로 의역되기도 한다. 성(姓)인 고타마는 ‘최상의 소를 가진 자’라는 뜻이고, 싯다르타는 ‘목적을 성취한 자’라는 뜻이다. 싯다르타는 태자의 신분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존재와 존재의 욕망이란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 앞에서 부질없음을 알고 29세의 나이에 출가를 한다. 그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그 후로 45년간 중생 구제를 위한 설법을 하고 80세에 열반에 든다. 영원한 자유를 향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정은 조형 예술로 시각화되어 불교문화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가야기획에서 만드는 도서출판 하이의 불교서적은
꼭 챙겨두어야 할, 전문성을 가진 책입니다!”

작명록은 (한국 278성씨 , 성씨별로 완벽하게 작명한 이름 6,065,726개를 음양, 음오행,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수리오행에 모두 맞게 지은 이름을 사주에 맞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新사주연구
사주 공부에 “꼭” 필요한책 | 저자:지안스님



프랭크 영어 이름
*작명록(上 · 下) 구입시 무료 증정합니다.



작명록(上 · 下)
완벽하게 좋은 이름짓는 책 | 저자:지안스님



불교 의식 시리즈(1~5)
불교 의식에 “꼭” 필요한 책 | 저자:지안스님

가야기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삼송테크노밸리 B동 433호 | 전화 02)379-2400 | 팩스 02)379-2401 | gaya2400@nate.com

"구산선문 연구, 시대변화 함께 조명해야"

한국선학회, 10월 27일 원로학자 2인 좌담회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

답사서 발견된 비문 기존 사료와 상이해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당시 교계 변화 상징 나말여초 연구 병행

한국선학회(학회장 신규탁)가 개최한 원로학자 좌담회에서 나온 두 원로학자의 당부다. 한국선학회는 10월 27일 서울 연세대 외솔관 526호 강의실에서 '두 원로교수에게 듣는다 -구산선문의 실상' 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원로학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구산선문에 대한 입장이 소개됐다. 또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고영섭 동국대 교수,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박사,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 윤기엽 선리연구원 박사 등 후학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먼저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는 〈조당집(祖堂集)〉 연구 및 답사과정에 기반한 경험을 소개했다. 조당집은 합천 해인사 고려대장경 속에 단 1본만 전해지는 선종 역사서로 초기 선종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조 명예교수는 1965년 동국대 도서관에서 〈조당집〉 영인본 간행에 참여한 이후 구법승을 비롯한 구산선문의 원류를 탐구해왔다.

조 교수는 "답사 현장에서 조당집에 등장하는 지명이라고 하여도 전등사나 비문 등에 의거해 연구 과정에서 바로잡은 결과가 많다"며 "후학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구산선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조당집에 의한 일종의 '조당로드' 는 당시의 사회 문화 흐름과 정치 변화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현지 답사 뿐만 아니라 당시 변화상을 함께 살표보며 선불교 교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972년 '신라 하대 선종 구산파의 성립' 발표 이후 50년 넘게 한국불교사 연구를 진행해 온 최병헌 교수는 '나말 여초 선종사 연구' 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병헌 교수는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 는 1937년과 1938년 포광 김영수의 오교구산부터 오교양종 연구로 시작됐다"며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에 대한 흐름을 보면 당시 불교계의 변화 양상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최병헌 교수는 봉암사 지증대사비문(智證大師碑文), 봉암사 정진대사비문(靜眞大師碑文), 쌍계사 진감국사비문(眞鑑國師碑文) 등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최 교수는 "비문을 보면 법계의 변화가 극명히 드러난다. 이 의미는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정통성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며 "법계의 변경은 불교계 변화의 산물로 구산선문의 법계 변화 속에 드러난 시대 변화, 그리고 불교계 변화상을 함께 살펴보고 연구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규탁 학회장은 "후학들이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것을 깊이 연구하는 경책으로 삼겠다. 선종사 연구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의 발표 내용은 한국선학회 학회지 〈선학〉에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가야불교 실존했나, 허구인가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등, 18일 부산대서 학술대회

가야불교는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니면 허구인가? 삼국유사를 토대로 전해지는 가야불교의 실존 가능성을 연구하고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조수동, 이진오)와 동명대 인도문화교류연구소(소장 장재진)는 11월 18일 오전 10시30분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가야불교문화 재조명' 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 개회식에서 이진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의 개회사와 내빈의 축사에 이어 2부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학술대회는 이진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이 기조발표로 '상상력 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야불교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가야불교문화-역사적 이미지와 현황(장재진 동명대 교수) △가야불교의 전래 시기와 전래처 검토(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아시아 해양 문화교류와 불교전파(석길암 동국대 교수) △가야불교 논쟁의 실체와 비판적 검토(윤종갑 동아대) △북발 루투의 관점에서 본 아요디야(한지연 금강대) △전설의 아유타를 찾아서-서역 사료로 새롭게 조명해 본 가야사(한대성 동국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다.

장재진 동명대 인도문화교류연구소 소장은 "가야불교문화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문화는 사전적 의미로 가장 넓은 분야를 의미한다. 특정 주제보단 가야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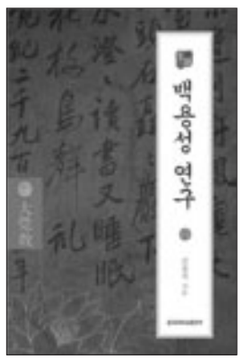
백용성 스님 연구 모든 것을 담다

동국대 출판부, '백용성 연구' 도서 출간

현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의 행적과 위상을 담은 연구서가 나왔다.

동국대 출판부는 "한국 근대불교사에 명망 높은 고승이었던 백용성 스님을 연구한 도서를 발간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백용성 스님은 대각교를 창시한 승려이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불교계 독립운동가다. 이 책은 백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으로 시작해 백용성 사상의 정체성, 백용성과 불교개혁, 백용성 사상의 계승까지 백용성 대종사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세밀하게 조망했다. 특히 25년간 근대불교연구에만 매진해온 저자,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필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동국대 출판부 관계자는 "이 책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생활화를 몸소 실천하신 백용성 스님의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그의 삶과 업적을 조명함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들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성철 소장 고문헌 정밀 학술조사 한다

해인사 백련암 · 동국대 MOU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고승 성철 스님(1912~1993)이 소장했던 고문헌의 정밀 학술 조사가 추진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과 해인사 백련암(감원 원택)은 11월 1일 백련암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12년부터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수행해 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이하 ABC) 구축 사업' 의 일환으로 성철 스님이 생전에 소장 · 연찬했던 불교 고문헌을 정밀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간행본 6백여 책과 중국간행본 1천 6백여 책 등 2천 2백여 책을 정밀조사, 촬영할 예정이다.

한편 ABC사업은 고문헌에 대한 집성과 역주작업을 수행 및 그 성과를 출판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및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 환수 성보들 보물 지정 잇달아

문화재청, 프랑스서 환지본처한 옥천사 초강대왕도 지정 공고

용천사 영산회상도 등 지정 예고 "종단과 관련 부처 노력의 성과"



10월 31일 보물로 지정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중 제2초강대왕도. 프랑스에서 발견돼 환지본처됐다.

도난됐다가 다시 환지본처한 성보들이 잇달아 보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됐다. 환수 성보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로서 그 의미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보물 제1693호에 포함되어 지정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 는 시왕도 10폭 중 1976년 도난당해 행방을 알 수 없던 2폭 중의 1폭으로, 최근 프랑스에서 발견되어 원래의 장소였던 고성 옥천사에 다시 봉안된 역사적인 유물이다.

2016년 환수된 '제2초강대왕도' 는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도상과 작품의 완결성을 한층 높여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시왕도 중에서도 구도, 색채, 필선, 인물의 표현 등 양식상 완성도가 높아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문화재청은 10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정 신청한 대비사 영산회상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보문사 삼장보살도 등 3건 3점의 회수 도난 성보를 보물로 지정 예고 했다.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는 영조 25년(1749년)에 조성된 불화로, 2000년 5월 30일 경 용천사에서 도난 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됐다.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는 숙종 12년(1686년)에 조성된 불화로, 1988년 12월 24일 대비사에서 도난 되었다가 2014년 8월 다시 회수됐다.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는 영조 43년(1767년)에 조성됐으며, 1989년 6월 5일 보문사에서 도난당했다가 2014년 8월에 회수됐다. 한 화면에 삼장보살과 시왕도(十王圖)가 결합한 독특한 도상의 불화다.

회수 도난 성보의 잇달은 보물 지정예고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지정 예고된 3건 3점의 성보는 2014년 종단이 경찰청, 문화재청 등 정부 기관과 협조하여 회수한 31건 48점의 성보 가운데 일부"라면서 "이번 보물 지정 예고는 2014년 회수부터 2017년 환지본처,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까지 종단과 문화재청, 경찰청 등 정부 각계 기관이 노력하여 이룬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은 앞으로도 모든 성보가 제자리에서 본연의 종교적 가치를 올곧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명상심리상담학회, 제21차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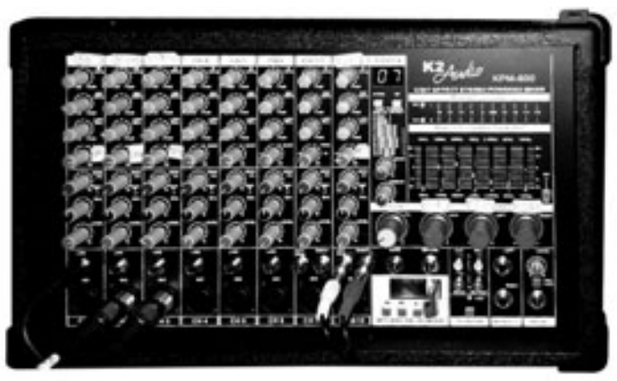
11일, 서울 목우선원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가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목우선원서 제21차 정기학술대회 및 명상상담포럼을 개최한다.

제1부에서는 △최금숙(동방문화대학원대 박사과정)의 '영상관법을 통한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이성권(강남메가스터디 강사)의 '수험생의 시험불안 치유 경험사례' △허수미(아들러심리센터 대표)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고생들의 영상관법적용사례' 가 발표된다. 제2부에서는 △선업스님(통담아카데미아 원장)의 '표현명상(집단상담)이 부부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일광 스님(거창군 삶의쉼터 관장)의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미혼여성의 명상심리상담사례-감춰진 날개옷을 입다' △비채상담연구소장 용진 스님의 '불안에 보호막이 되어준 호흡명상'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사용중인 법당의 앰프, 스피커를 최고급 "파워드믹싱 앰프"와
아래 장비로 단 160만원 에 소리 공양차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회수 해 옵니다)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700,000 +
무선핸드 헤드셋 마이크 900메가(1가지 선택) 가격 300,000 +
각종 마이크 코드 탁자 설치비 일절 비용 : 250,000 =
실제대금 ~~2,450,000원~~ ➡ 160만원에 할인 설치함!

무선랜드, 헤드셋 마이크 900메가 (1인용 선택)
(기본으로 무선 핸드나, 무선 헤드셋 중 한가지 선택)
주지스님 전용! 자체 소리조절
고성능 탁상 마이크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법당의 앰프 설비 보상교체 신청법!
본 설치는 무료 보시 및 보상 성격상 출장 설치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상품을 예약시 우측의 계좌로 앰프 구입비의 계약금 '50~60% 정도 입금' 하시고 주소 및 희망 설치일,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CD 플레이어 5개 연속사용 가격 : 350,000원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깨달은 사람에 대하여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다. 드러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는다.

비어 있으나 가득하고 가득하나 비어 있다. 지음이 없으나 작용(作用)이 있고 작용이 있으나 머묾이 없다. 보고 듣고 오고 가는 것이 오고 가고 보고 듣는 것일 뿐 더함도 덜함도 없다.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는다.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하나이나 그 하나에도 머물지 않는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숨어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다. 물처럼 공기처럼 내곁에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분주하게 헤맬 뿐 마음을 크게 열지 않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도 진정한 자유인이 되길 바라면서도 집착이라는 병(病),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날마다 좋은 날의 진정한 자유인은 졸리면 잠을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자연 그대로의 사람다운 사람이다. 부처는 신(神)이 아닌 참사람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열린 마음이면 이르는 곳마다 정토(淨土)이다.

이글은 몇 년 전에 펴낸 선문답(禪問答)의 여는 글이다.

흔히들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아 답변으로 옮겨온 글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 부처는 참사람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여, 진리와 한 몸을 이룬 깨달은 사람은 생각의 윤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오고 가고 있고 없고 높고 낮음 등에 차별을 두거나 끄달리지 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다. 꾸밈이 없고 조작하지 않으며 순수와 진솔함으로 자연스런 삶의 주인공이 된다.

지나간 어제에 집착하거나 미련두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거나 쌓아둠으로 맞지 않는다. 어제도 내일도 없는 오로지 오늘의 주인공으로 넘치거나 부족함 없이 평화와 행복, 자유인으로 얽매임 없이 살아간다.

모으거나 쌓아둠 없이 비우고 버리며 나누는 기쁨으로 발길 닿는 곳이 정토이다. 변두리도 없다. 모서리도 없다.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만나는 사람이 모두 부처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커다란 교과서요 만나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다. 선지식이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하나이나 그 하나에도 머묾이 없는 머묾이 선지식의 삶인 까닭이다.

본래 동, 서, 남, 북은 없는 것이다.

나는 어느 곳에 서 있어도 세상의 중앙이요 이르는 곳이 극락세계의 평화와 행복, 자유 누리는 오늘의 주인공인 것이다.

관세음보살과 문수와 보현이 나뉘어 셋일 뿐 셋이 아닌 하나요 보신(報身) 화신(化身) 법신(法身)이 셋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하여,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는 것이다.

드러낼 일도, 감출 일도 없이 목마르면 물마시고 졸리 우면 잠을 자는 자연인으로 살 일이다.

업(業)은 습관이다.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모으고 쌓아두려는 속물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는 수행자가 아닌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입으로 짓는 것만이 구업(口業)이 아니다. 눈은 보는 입이요 귀는 듣는 입이다. 코는 냄새 맡는 입이요 배꼽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이다.

손짓과 발짓, 몸짓으로 뜻을 나타내는 시늉도 또 하나의 입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열린 안목으로 열린 자세로 간절심으로 마음 모아 깨달음을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참사람,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집착과 의혹, 얽매임에서 천지개벽하듯 참사람에 이르게 되면 평화롭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자유인이다.

거짓으로 솔직하지 않는 꾸미는 만족은 윤회를 거듭할 뿐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로운 수행의 완성은 구호나 연습으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림 없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인, 자유인으로 살 일이다.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롭다

순수와 진솔함으로 삶의 주인공이 된다

매서운 추위에도 얻은 고고한 깨침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가에서 전해지는 선사들의 일화에는 고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다. 모두가 은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원래 선은 사량분별(思量分別)로 이해하는 것을 금기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행동이나 개념을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상대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다.

백장회해(百丈懷海:720~814)선사는 중국 선종사에서 총림의 청규를 세운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마조(馬祖) 문하의 특출한 걸승으로 남전보원(南泉普願), 서당지장(西堂智藏)과 함께 삼대사(三大士)로 불리어졌던 대선사였다. 백장산에서 선원을 세우고 청규를 제정하여 대중을 이끌고 농사와 선수행 병행하여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생활화 하였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고 그가 남긴 말은 오늘날까지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백장이 스승 마조와의 문답을 기초로 한 공안에 "백장삼일이농(百丈三日耳聾)"이 있다. 백장이 삼일 동안 귀가 먹었다는 말이다. 〈연문염송설화〉 181칙에 백장이 두 번째 마조를 뵈오니 마조가 불자(拂子)를 세웠다. 이에 백장이 물었다. "이것에 의하여 활용하오리까, 이것을 떠나서 활용하오리까?" 마조가 불자를 본래 자리에 걸어 두거늘, 선사가 백장이 양구(良久:잠시 침묵을 지키는 것)하니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훗날 어떻게 두 입술을 놀리면서 무엇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가?" 백장이 불자를 세웠다. 마조가 물었다. "이것에 의하여 활용하는가, 이것을 떠나서 활용하는가?" 백장도 또한 불자를 본래 자리에 걸어 두었다. 이에 마조가 할(喝: 크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을 하니 백장이 삼일 동안 귀가 먹었다.

나중에 백장의 제자 황벽이 하루 만에 하직하고 마조를 뵈러 가겠다고 하니 백장이 말하기를 "마조는 이미 천화(遷化)하였느니라." 하였다. 황벽이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조께서 무슨 말씀이 계셨습니까?" 백장이 두 번째 뵈러 갔을 때의 일을 말하고 "내가 그때 마조에게 한 차례의 할을 받고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고 하였다. 황벽이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혀를 빼거늘 백장이 또 물었다. "그대는 후일에 마조의 대를 잇지 않겠는가?" 하자 황벽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님을 통해 마조대사의 큰 기틀의 작용을 보았을 뿐이요, 마조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마조의 대를 이으면 뒷날 저의 자손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장의 '3일 귀먹은 이야기' 와 황벽을 '혀를 뺀 이야기' 가 선가에 나돌게 되었다.

이 '이농삼일(耳聾三日)' 의 화두에 대하여 조선조의 청매인오(靑梅印悟:1548~1623) 선사가 지은 게송이 〈청매집(靑梅集)〉에 전해진다.

금강 같은 할 한 번에 단박에 못을 뽑으니 金剛一喝抽釘急
맑은 하늘에 번갯불이 번쩍 하구나 白日靑天電影忙
빗장 밖 길로 고개 돌릴 틈도 없는데 無暇轉頭關外路
가을 빛 재촉하는 기러기는 형양(衡陽) 지나가네. 雁拖秋色過衡陽

형양(衡陽)은 중국 호남성 동남부에 있는 지명이름이다. 이곳에 오악(五嶽) 가운데 하나인 남악(南嶽)이 있고 마조의 스승 회양(懷壤: 677~744) 선사가 이곳에 있었다. 백장의 사조(師祖)가 된다.

청매 인오(靑梅 印悟 1548~1623)는 서산(西山)대사 휴정(休靜)의 제자로 묘향산에서 서산대사를 모시고 있다가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장으로 전쟁에 참가해 3년 동안 승군을 이끌고 왜군과 맞섰다. 전쟁 속에서 그는 처절한 참상을 느끼고 깊은 고뇌에 시달리다 다시 한 번 크게 발심하여 전남 부안 아차봉 마천대 기슭에 월명암을 짓고 일대사 해결을 위한 혹독한 정진에 들어갔다. 이때 그가 머물던 선실의 이름도 청매당(靑梅堂)이라 하였다. 매서운 추위 속에 피어나는 매화와 같이 고고한 깨침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는 또 그림에 능해 광해군 9년(1617)에 왕명으로 벽계(碧溪) · 벽송(碧松) · 부용(芙蓉) · 청허(淸虛) · 부휴(浮休) 등 5대사(五大師)의 초상을 그려 조사당(祖師堂)에 모시고 제문(祭文)을 지어 봉사하였다. 또 십무익송(十無益頌)이란 글을 지어 수행자를 경책하기도 하였다.

자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⑰ 깨끗한 자비심이란

施悲淨品第二十四

猶如雪山生一切藥。大悲雪山生三種施。一切功德除悲更無有法能與世間作樂。施作悲體能㓛世間作種種樂。無上果報㓛三施所成。悲是三施之因。眾生祖母能生如來。一切眾生無上最勝歸依誰不恭敬。能生三施是名大悲。菩薩大悲功德極多在心中住。唯有一事而不遠離無有染著。常作利益他事無有疲厭。世間出世間樂及利他樂。皆從悲生。是以我今恭敬於悲能利益世間大悲者。我亦恭敬種種功德。實如所說有二功德最勝。能利益他及自淨悲。悲能淨於施。是以我今愛敬施能莊嚴於悲。我亦愛敬悲諸有同悲音者。亦復愛敬悲能淨心體施能淨業道。能淨心體能淨業道。æ 能淨涅槃道能淨無上菩提道。悲能淨捨。無悲者垢汚於捨。施能淨悲悲能淨施。是名世間端正。悲能生信敬。猶如大地㓛眾華莊嚴。大悲亦復如是。世間眾生㓛煩惱日之所燒逼。得悲心者皆生掠樂。猶如夏熱之時得清凉風皆得止息。

번역 | 시비정품 제24

설산에 일체 약이 자라듯이, 대비심의 설산에 세 가지 보시가 자랍니다. 일체의 공덕에 자비심을 제하면 능히 세상에 줄 약을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시로 자비의 근본을 삼아 세상의 가지가지 약을 지어야 합니다. 위없는 과보는 세 가지 보시로 이룩되는바, 자비는 세 가지 보시의 인연입니다. 중생의 조상과 어머니를 능히 여래로 태어나게 하며, 일체 중생의 위없는 최고 수승한 귀의처가 되니 누가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능히 세 가지 보시를 내어야 대비심이라 이릅니다. 보살의 대비심 공덕은 극히 많지만 마음에 있습니다. 오직 한 결같이 섬기에 떠나지 않고 집착에 물듦도 없습니다. 늘 타인을 이익 되게 섬기며 피로함이 없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즐거움으로 타인의 이익케 하는 즐거움에 이르는데, 다 자비심을 좇아 생깁니다. 이것으로써 내가 지금 자비심을 공경함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비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역시 가지가지 공덕을 공경하나니, 실제로 설한 바 두 가지 공덕에 있는 가장 수승한 것은 능히 타인을 이익케 하여 스스로 깨끗한 자비에 이르는 것이며, 자비심으로 능히 보시에 깨끗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사랑과 공경의 보시로써 자비심을 능히 장엄합니다. 내가 역시 공경하는 자비심은 모든 자비의 음성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니, 역시 다시 공경함은 자비심은 능히 마음 근본을 깨끗케 하며, 보시는 능히 업의 길을 깨끗케 하기 때문입니다. 능히 마음 근본을 깨끗케 하면 능히 업의 길을 깨끗케 하며, 곧 열반의 길을 깨끗케 하여 능히 위없는 보리의 길을 깨끗케 합니다. 자비는 능히 깨끗한 희사며 무자비한 이는 희사를 더럽힙니다. 자비가 능히 깨끗한 자비면 자비가 보시가 됩니다.

해설 |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진리는 '자비심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 는 가르침이다.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능히 마음 근본을 깨끗케 하면, 업의 길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열반의 길이 깨끗해지고 위없는 보리의 길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뜨거운 여름날 뙤약볕 아래 타들어 가는 꽃과 같은 존재다. 끝도 없이 표류하며 먹어도 먹어도 목마른 바닷물에 목을 축이는 존재다. 그렇게 욕망의 갈증은 또 다름 욕망의 갈증을 부른다. 뉘라서 청량한 바람과 비구름을 부를 것인가. 자비를 통해 표류하는 마음을 안정시킬 일이며, 타들어 가는 중생들 번뇌의 불을 소멸시킬 일이다.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금정총림범어, 복지로 연 정토세상 20년

11월 15일, 창립20돌 범어복지대회 개최

복지로 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창립된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가 20돌을 맞았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는 불교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노력한 모든 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장을 마련한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대표이사 경선 · 이하 범어)가 '창립 20돌 기념 범어복지대회'를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허심청 대청홀에서 개최한다.

범어복지대회는 먼저 '불교법인의 위상과 우리가 만드는 법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연다. 토크 콘서트는 박경일 동국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불교복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김영 범어 사무국장이 '금정총림범어의 성과와 중장기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BNK 부산은행 실내악단의 축하공연이 무대를 장식하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기념법회는 법인 상임이사 선재 스님이 그동안 활동 연혁과 성과를 보고한다.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도 진행된다. 상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부산시장상 등 봉사자와 기관 단체 총 8명을 선정해 수여한다. 특별 순서로 '108 후원단' 단장 위촉장 수여 및 소감 발표가 이어진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대표이사 경선 스님의 대회사, 내빈의 격려사 및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 사무국장은 "불교복지는 안정된 후원처가 있어 꾸준히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며 "반면에 후원자 모집을 통한 복지활동 참여도는 저조한 편이다. 이를 개선하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복지사

박경일 교수 토크 콘서트
미래 불교복지 대안 제시
공로자 단체 및 개인 표창
"후원자 복지 참여 높일 것"

각지대를 찾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범어는 현재 '108 후원단'과 '천수천안 천만 후원단'을 모집 중이다. '108 후원단'은 한 달에 한 번 '좋은 인연 맺기'에 참여할 수 있다. '좋은 인연 맺기'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스님을 친견하고 직접 질의하며 불교에 대해 습의하는 시간으로 일반 사회인을 위한 자리다. 아울러 네트워크를 형성해 후원금 사용 방법에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후원자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후원금은 한 달에 5만원이다. '천수천안 천만 후원단'은 한 달에 1만원을 법인에 후원하는 1천명 후원자 모임이다. 후원금은 범어에서 운영하는 복지뿐 아니라 청소년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후원자는 연 1회 법인 후원금 보고를 받으며 각종 행사에 초청된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가 '창립 20돌 기념 범어복지대회'를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허심청 대청홀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2013년 자비의 김장나눔 현장.

법인 범어는 1997년 11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첫 사업으로 무료 급식소를 개소하고 2000년에는 실직노숙자쉼터 선혜마을을 위탁 운영해 본격적인 나눔 복지를 지향했다. 이후 전문복지활동을 위해 2001년 9월 1일 범어사 사회복지센터를 개소하고 2002년 1월 1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했다. 현재 마야 어린이집,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금정노인요양원 등 법인 산하 총 12개 복지시설 및 청소년 시설을 운영 중이다.

하성미 기자

전등사, 민초 위한 희망의 등불 100년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 봉행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초를 위한 등불로 활동해 온 전등사가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전등사(주지 도문)는 10월 29일 전등사 대웅전에서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기념법회는 1부 점안법회로 대웅전 삼존불 개금 점안의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 헌다례 및 전등사 100년 사적 도록 봉정식이 이어졌다. 이어 모범불자 표창, 이웃돕기 쌀 500포 전달식 순서로 진행됐다.

주지 도문 스님은 "부처님 개금 점안식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자 도리라 생각한다. 모든 신도님들이 함께 동참한 참된 인연불사"라며 "아울러 100년사를 돌아보는 도록을 발간하고 역대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공덕을 기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등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부산 동래 망월산 자락에 창건됐다. 현재 장학회 운영으로 인재 불사에 앞장서며 문수회, 다향회, 등불회 등 신도단체로 신행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법회에는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해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 회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최인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선조계종 창종 4주년 기념법회

10월 31일 종정 이 · 취임도



(사)한국불교선조계종(총무원장 법성)은 10월 31일 창종 4주년 기념 및 종정 이 · 취임법회를 부산 덕천동 성원사에서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예호당 법정 대종사, 원로의장 정인 스님, 원로 지선 · 혜원 · 월현 · 정광 스님, 총무원장 법성 스님, 종회의장 법륜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경과보고에 이어 원로의장 정인 스님과 총무원장 법성 스님은 종단기를 전달받았다. 법성 스님은 "앞으로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으로 정립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부처님 가르침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원로의장 정인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자애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함으로 인도해주는 오늘 이 대법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뜻을 새기는 계기가 된 것이다"고 축하했다.

종정 법경 스님은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 버려야 참 법"이라며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또한 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라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가야산 자은사 대웅전 낙성식 및 점안법회

태고종 경북교구 분원 자은사(주지 지형)가 10월 29일 대웅전 낙성식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화엄선종 총무원장 무송 스님과 문도회장 도성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무송 스님은 "부처님 조성과 점안으로 나투신 환희심으로 신심을 갖고, 이제부터 불자들의 몫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배하고 믿고 따라 복락을 이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은사 주지 지형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하니 앞으로 더욱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가짐으로 더 큰 원을 세워 수행정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자은사는 앞으로 극락전, 용왕당 불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번뇌 · 보리가 하나의 門으로"

삼광사 일주문 낙성 1만 사부대중 동참

천태종 삼광사가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을 기원하며 일주문을 지나 함께 경내에 입장했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11월 1일 일주문 앞에서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일주문 높이는 6m로, 배흘림기둥과 다포식 공포의 맞배지붕으로 건립됐다.

현판 제막식 후 삼광사는 지관전에서 '삼광사 신도회 창립 48주년 기념대법회 및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삼광사는 기념대법회를 통해 국태민안과 국운융창, 2030국제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함께 기원했다.

법회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번뇌와 보리가 하나의 문으로 제법이 그대로 실상의 묘법이다.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대사인연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하는 것이다"고 법문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우리가 일주문을 세운 것은 오고가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일심이 되고, 그 하나 된 마음조차도 멸하여 각자의 여래장에 연화 꽃이 피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다"며 "오늘의 인연을 이어 부산은 2030세계등록엑스포를 유치하길 바란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화합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세계인류 평등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자"고 말했다.


삼광사는 11월 1일 일주문 앞에서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일주문 높이는 6m로, 배흘림기둥과 다포식 공포의 맞배지붕으로 건립됐다.

낙성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운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삼광사는 11월 2일 '국화문화축제'를 삼광사 경내에 개최했다. 축제는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의 토크 콘서트, 들차체험 및 시연, 들꽃 분재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2017 부산불교합창 경연대회 열린다

11월 14일 금정문화회관서

부산 각 사찰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경연으로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박화자)는 11월 14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17년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매년 생명 · 사랑 · 나눔 · 보시를 주제로 유명 연주자를 초청하고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 등 다채로운 합창제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별히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찰 합창단의 경연대회로 개최된다.

참가팀은 관음사 환희 합창단, 대광명사 소리장엄합창단, 문수사 마야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등 11개팀이 참가한다.

시상은 대상(1팀) 상금 300만원, 금상(1팀) 상금 200만원, 은상(2팀) 상금 150만원, 동상(2팀) 상금 100만원, 장려(5팀) 상금 50만원이 전달된다. 또한 이번 대회서는 지휘자상이 수여된다. 지휘자상을 받은 지휘자는 부산불교연합합창단 신임 지휘자로 활동하게 된다.

하성미 기자





창건 40년 관음사, 군산제일 도량 서원



허허벌판과 다름없던 군산 나운동에 전법과 기도수행 도량으로 창건한 관음사가 창건 40주년을 맞았다.

군산 관음사(주지 도천)는 10월 28일 창건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창건주 재곤 스님의 창건이념인 전법과 나눔, 기도수행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창건주 재곤 스님과 선운사 한주 법현 스님, 광주 지장암 서경 스님, 고창노인복지관장 대원 스님, 선운사 기획실장 대선 스님,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천 스님은 "40년 전 미래를 내다보시고 전법도량을 창건한 재곤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곤 스님은 법어를 통해 "허허벌판과 다름없는 이곳에 관음사를 창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회고하고 "관음사가 군산제일의 기도수행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마음을 합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옥련암, '평화' 화두 음악으로 나눠



가을이면 노란 은행나무가 도량입구에 줄지어 불자들을 맞이하는 완주 옥련암(주지 일감)에서 지역주민들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평화음악제가 열렸다.

완주 옥련암은 10월 28일 대웅전 앞 은행나무 그늘아래 특설무대에서 '은행나무 멋있는 날 가을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이 가을, 평화를 말하다'하는 주제로 진행된 음악회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 도법 스님과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의 길을 걷고 있는 '4·16 평화순례단'이 동참했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평화를 주제로 한 대화 중간 '이창선과 대금스타일'과 국악인 최정희가 출연해 대금 연주 등 전통국악공연과 판소리를 선사했다. '평화 꽃피어라'라고 적힌 깃발이 휘날리는 대형솟대와 곳곳의 평화를 기원하는 소원지가 달린 평화의 등에는 참석자들이 각자 평화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담았다.

이날 평화한마당은 도법 스님의 '평화 한 말씀', 평화 소원지 달기,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와 예불, 평화 모닥불 축제, 이승호 작가의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위안부피해자 위령 천도재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천도재가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10월 31일 광주 서구청 광장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피해자 영가를 위한 위령 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천도재는 최근 서구지역 각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 조성한 '평화의 소녀상'을 기념해 열렸다. 행사에는 월인 스님, 혜령 스님, 호산 스님을 비롯해 광주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과 임우진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 참여해 위안부피해자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며 "불교 전통의식의 전승과 후학 육성과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한 전수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의 시연으로 신중작법, 지장청, 화엄시식 등이 열려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캄보디아 오지에 전한 감로수

태고종 (사)나누우리 초교 식수대 추가 착공



(사)나누우리 임원진 스님들이 트라치 초등학교에 9호 식수 정수대를 설치하기 위해 첫 삽을 떴다.

자비실천 나눔도량 (사)나누우리가 캄보디아 오지의 초등학교에 9호 식수 정수대를 설치한다.

나누우리 부이사장 만우 스님(밀양 법성사), 상임이사 묵원 스님(통영 보현사), 봉사단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해외구호담당이사 청공 스님(아산 영원사), 대외협력이사 자우 스님(남해 금왕사), 국내구호 담당이사 진송 스님(대구 혜인정사) 등 임원진은 10월 21~25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방문해 기존에 설치된 8곳의 식수 정수대를 점검하고 9호 식수대 설치학교인 트라치 초등학교에서 식수 정수대 착공식을 개최했다.

임원진은 기존 8곳의 식수 정수대 설치 초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주민들까지 식수 정수대를 이용하고 있어 6개월 단위의 필터 교체가 2개월 정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9호 식수 정수대 설치학교로 선정된 트라치 초등학교는 씨엠립주의 시골학교로 교사 4명이 학생 200명을 가르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나누우리 임원진들은 교장 등 교사들의 교육열의가 높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며 청결상태 등 향후 정수대 유지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이에 나누우리는 지하수개발 업자 선정과 식수 정수대 공사업체, 정수기 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외에 산청 왕복사 자우 스님은 자체적으로 훈센 쁘레아앙톰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관정과 식수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나누우리 임원진들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전거 100대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훈센 쁘레아앙톰 초등학교는 씨엠립 시내에서 2시간 버스를 타고 산 입구에서 학교까지 무려 1시간을 더 걸어가야 하는 곳으로 전기시설도 없이 인근 산골마을 어린이 400명이 공부하고 있다.

이번 나누우리 캄보디아 방문단은 첨단 설비와 보완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캄보디아 씨엠립주에는 499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외곽지역의 학교는 전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을빛 물든 내소사 산사음악회

'우리절 우리마을' 주제 지역공동체 문화잔치로



내소사는 10월 28일 경내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과 대웅전 꽃살무늬 단청으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에서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내소사는 10월 28일 가을 단풍색이 점차 짙어가는 수령 1,500년 된 당산나무와 산사의 전각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부안,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우리절 우리마을, 삶의 고향'을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일주문에서 전나무숲길을 따라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진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통 현악의 아름다운 소리를 머금고 있는 거문고 독주, 대금, 거문고, 장구가 함께 어우러지는 남도 굿거리, 외손대금 독주에 이어 국악 퓨전앙상블 '흘림'이 출연해 관객들과 호흡하며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선보였다. 또한 모던 포크가수 주권기가 출연해 우리 귀에 익숙한 빠른 템포의 포크음악을 선사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트로트 가수 박상철은 '무조건' '자옥아' '황진이' 등의 대표곡을 열창하며 운집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내소사 산사음악회는 지역주민과 내소사의 상생관계를 잇는 지역 공동체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문화잔치"라며 "전통음악과 산사의 멋을 빛내주는 음악회를 통해 힐링과 휴식,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날 내소사 경내에는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단청 그리기 체험, 연꽃 만들기 체험, 전통차 시음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부안지역 먹거리와 특산품을 체험할 수 있는 나눔장터가 열렸으며, 설선당과 봉래루에서는 관음조의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보물 291호 내소사 대웅전 단청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시민 평안 기원 무등산 산신재 열려

광주동구불교협의회 주최

자연환경 보존과 광주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무등산 산신재가 열렸다.〈사진〉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증현)는 10월 30일 무등산 입구인 문빈정사 앞 잔디밭에서 동구지역 회원사찰들과 박주선 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을 비롯해 불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산신대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내외빈 소개, 인사말, 축사, 발원문(선묘 스님), 산신청, 산왕대신정근, 축원과 2부 음악회가 열렸다.

회장 증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의 어머니와 같은 무등산은 광주의 자랑이자 광주불교의 모태와 같은 산"이라며 "이번 산신대재는 우리 민족의 살아가는 지혜를 되살려 광주의 풍요와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다. 또한 많은 시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종립 정광고교 사찰서 템플스테이

청소년들이 불교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다.

불교종립학교 정광고등학교(교장 임형칠)는 10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1·2학년 868명이 참여하는 대단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행사는 호남지역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인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금산사, 선운사 등 17개 사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정광고등학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역사문화를 배우는 한편, 학급별 활동을 통해 친구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는데 의미를 뒀다"고 행사 취지를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는 것 중 계행과
보시만이 가장 높거늘 너희는 무엇을 뜻
하고 생각했기에 착한 일을 하지 않느냐.

- 불설분별선악소기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사찰행사, 회심곡
(화청), 바라춤,
염불, 49구재,
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6246-6672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법당조성, 이운, 퇴불, 철거
도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만족을 드립니다.
010-5457-3356

해남 땅끝 성도암 절임 배추
선 주문 받습니다.
20kg 1박스 3만원 (택배비 별도)
010-9656-0108
061-533-1639
주지 풍암 연봉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 재의식, 각 예불,
천수바라, 나비무,
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 (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 3310

기도스님, 처사님
모십니다
절에서 공부할 행자
모십니다
(부산)
010-3840-4355

풍경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서울 강북구)
숙식, 출퇴근 가능
02) 992-0110

신 심 있 는
공 양 주
보 살 님
모 십 니 다
(가평)
010-3774-4099

불교실전의식 학인모집
본 교육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재의식에 필요한 사물(북,태징,요령,목탁) 및 바라춤, 나비춤,법고(홍고)를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휴심사교육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14번 출구)
010-8588-2816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과 돌맹이로 만든 방편이 필요한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당뇨, 고혈압, 치매예방, 손발저림
치유가능
약손스님 현오
010-5647-3915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우리들의 내면에 빙의(신들림)나 우울증,어깨통증환자를 비롯해 수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84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주 문 : 전화·문자 010-4475-6611 (주소와 성명, 염주 번호를 선택하여 주문주세요.)
계 좌 : 농협 351-0895-1240-43 (자비의등불)
보급처 : 캄보디아 국제NGO 자비의 등불 후원사업체(향불원, 등록번호 221-82-72640)

교육학 박사

진각스님의 명리학교실 · 단기속성교육과정 개강
- 제도권 학문이 된 命理學을 수학하여, 방편으로 삼고자 큰 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제1기 초급입문반과정.
- 한자(漢字)를 몰라도 가능하며 명리상담법, 작명법을 주 1회로 하여 짧은 속성단기과정 강의.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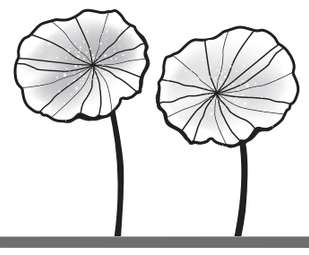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삼보에 항상 신심을 일으켜서 대승의 오묘한 경전의 모든 선한 공덕을 닦아 물러서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아주 빨리 깨달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 소실지갈라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 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7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경북 영양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800㎡
- 사찰이 조용하고 깨끗하며 면소재지 부근
- 양도가액 : 1억 6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부지 : 55평 ◎ 면적 : 150평
◎ 인법당 : 4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10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 11
- 부곡시장 상가 2층 35평
- 보증금 2000만, 월세 40만 (조정가능)
- 시설비는 현장 보시고 결정

010-5522-667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상가 건물 5층건물에 반지하 대형사찰 198평
- 시설A급 현재 법회 하고 있고, 몸만오시면 됨
- 관리비등은 걱정 무! 부동산 사절!
- 은행융자 9,000 안고, 1억 8천만원!

010-6717-682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예천 사찰 (급) 안내

- 마을사찰. 남향
- 토지 40㎡. 인법당. 주차가능함
- 운영잘되는사찰. 깨끗하고 신도관리사찰
- 스님사정상 양도. 위치좋음
- 양도가액 : 1억3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지하철역 인접
- 토지 1,296㎡ (약390평)
- 건물 3동 법당 공양간 상담실 등
- 방 많고 돌탑등 조경이 잘되어있고 주차장이 넓음
- 가액 : 보 2000만, 월150만원 시설비 8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독채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50평
- 1층 : 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2층 : 방 3, 거실
- 도로변대문 3m 연결 냉난방시설, 얼마전 올수리 일반주택구조, 동남향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인테리어비)

010-6838-314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 58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채 40평, 산신각 5평
- 가액 : 3억3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기도와 포교지로 좋습니다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부지 : 1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2층,청기와,단청)
- 요사채: 2동60평, 기타:산신각,석탑,석등
- 가액 : 4억9천만원
- 특징: 번화가에 위치한 도심사찰로 신도구성이 잘되어있어 사찰운영이 아주용이합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찰 안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소백산 국립공원내 달발골
- 부지 : 10필지 3,036평
- 용도: 대지 3필지 469평 전 7필지 2,567평

법당: 38평, 창고: 15평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12억

010-2480-2918

한옥 안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0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7억 8천만원

010-5923-3388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2억 1,500백만원 (대출 7,500백 안고 1억 4천)

010-7188-7723

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 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 중앙동, 시장 초입에 있음
- 원불 : 아미타, 관세음, 산신
- 탱화 : 부처님 후불 금신중 칠성. 2층 34평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육백, 판넬바닥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9906-966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수원시 장안구
- 상가 3층 45평
-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살림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모든 시설물, 집기류 전부 양도

010-3102-5321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 위치:경북 울진군 온정면 원덕산길 392 (백암온천 부근)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찹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하고자 합니다. 대중스님이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IC 15분 거리
- 면적 : 부지 55,000㎡, 건물 270㎡
- 법당, 삼성각, 용왕당, 요사채2동, 황토방 연못, 채전밭, 각종 유실수 산과 계곡,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법당방6,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 가액 : 5억 5천만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 2천(5천만원 빼드림)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 안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 부지 : 대지 136평
- 건물 : 46.42평 1층 법당 2층 거실방 3개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3억8천만원

010-2480-291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30평
- 방7칸, 스님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 시내에서 5분거리, 입지 조건 최고

010-2498-7899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암자터(펜션.전원주택)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소재
- 대지 300평. 건물 25평 (조립식). 전답 921평
-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명당터. 토목 조경 완료
- 가액 : 5억

010-3518-3958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 법당, 용궁전, 산신각, 요사채
- 총 1,515㎡ (458평)
- 가액 : 6천만원

010-9036-21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 770-2(허)가06-2231

공신공인중개사 "급 매물" 안내

- 위치 : 부산시 15분 거리 근교.. 양산 명곡 마을에 위치한 사찰
- 대지 200평, 건물 120평(대웅전, 요사채, 불두) 마당, 일주문
- 주위 대지시세 약 3백만원,
- 등기부 매입시 8억8천만원 등재
- 급한사정 : 8억 3천에 양도

010-3570-002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각단탱화,법당,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찰 안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60평
- 가액 : 7억 5천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친환경 삼베타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며,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 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시장 앞 대로변 중심지역 7년하던곳
- 확장이전 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3층 40평정도 법당.방2개 공양실겸 부엌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3백40십
-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음
- 시설합 1350 만원

010-2847-628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 10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창고 건물 1동
- 대중교통 편리함
- 가액:대출 4천만원 양도가 1억 6천 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수행 도량으로 적합

010-8794-1257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각단탱화,스님방사,산신각
- 가액 : 1억
-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 4층 (5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차후 조정 결정
- 무료주차시설 완비

010-9421-9364

사찰 안내

- 위치 : 거제
- 대지: 500평
- 건물:법당 25평, 산신각8평 요사채1 40평, 요사채2 26평, 기타 8평
- 국내유일의 나전칠기탱화 상단, 신중단
- 지방문화재급:석조미륵마애불상 탱화(약 150년) 100년된 석조지장보살
- 5층석탑:석조금강역사 2구(석조)
- 가액 : 12억

010-9245-8214

단독 건물 포교당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내 (최고요지)
- 3층건물 중 3층 전체 약 50평
- 옥상 단독사용 (7년 운영)
- 대작불사로 인연있는 스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 가액 : 보증금 500만. 월 40만
- 벽돌도배 및 냉온풍기 시설 최상급

010-5134-8108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019-5385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기장. 바다전망 좋음
- 105평(실평 76). 3층 중 3층(신축건물)
- 엘리베이트 2대, 주차 50대, 법당 5존불, 탱화
- 종무소, 공양정, 원목락카, 수입원목설비 방3, 욕실3, 샤워부스3, 친견실
- 부산 기장 바다 전망.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4천5백만원

010-3832-6626
010-2065-333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송동면 송내리 산 143-1
- 건물 : 대웅전 10평, 산신각4평, 칠성각4평 3층석탑, 종각, 요사채2동, 야외화장실 2칸 지하수 사용, 문중소유땅 300~400사용
- 문화재: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150호 보유 2004년 전북 문화재관에서 8천만원 지원 받음 2010년 남원시 문화재관에서 6천만원 지원 받음
- 가액 : 6천만원 (문중 소유땅 보증금 3천만원, 1년세 30만원)
- 다음카페 「가덕사」 치시면 자세한 정보나옴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9283-9511

사찰 (급)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500평 남짓 법당 목조,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일억 8천 모두 합 2억 5천 5백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청림로 요지
- 상가2층 80평 딘독사용
- 법당,공양간,화장실3개 스님방 완전수리
- 보증금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는 보고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2857-28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437~5
-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장엄.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추후 상담.
- 오후2시 30분 이후. 연락주세요

010-9282-5885

미국내 '불교스타일' 결혼 '각광'

'뉴욕 타임스' 등 외신, '마음챙김 결혼'에 주목

미국에 거세게 불던 '명상 바람'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마음챙김 결혼(Mindfulness Wedding)'이 바로 그 주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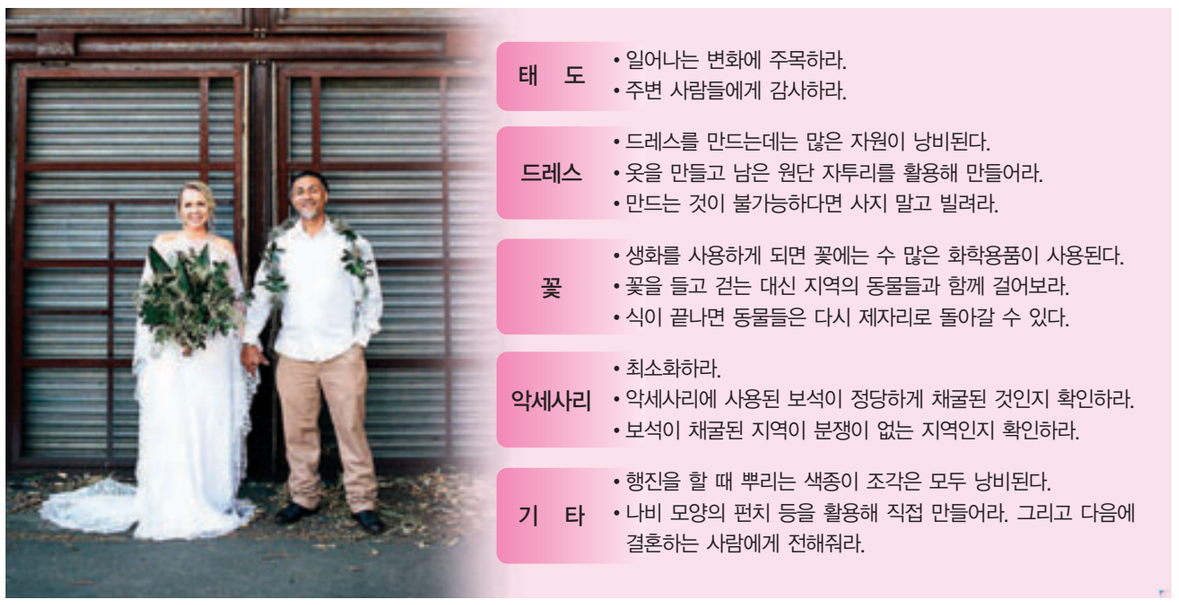
'마음챙김 결혼'이란 단순히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챙긴다는 뜻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결혼이다. 결혼식에 사용되는 모든 사치품을 없애고, 음식은 채식으로 구성하며, 재고로 남은 원단을 사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결혼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필수다. 인생 한번뿐인 결혼의 의미를 더욱 가중해주는 것.

'뉴욕 타임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앞다퉈 마음챙김 결혼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뉴욕 타임스'는 10월 18일, 미국의 마음챙김 결혼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으로 번져 '마음챙김 결혼 컨설턴트'까지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데일리 메일'은 실제 마음챙김 결혼식을 한 부부를 자세히 소개하며 이 결혼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하기도 했다.

'데일리 메일'이 조사한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식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라 △가능한 구매하지 말고 빌려라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지역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사용하라 △얻어진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라 △음식은 주로 채식으로 꾸려라 △결혼식을 하며 일어나는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라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한 결혼에 필요한 세부적 지표를 나눠 설명하기도 했다.

결혼식 사용 제품 낭비 최소화
시시때때 마음 변화 바라볼 것
불살생·평화 중시 불교정신 닮아



태 도	•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라. •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드레스	• 드레스를 만드는데는 많은 자원이 낭비된다. • 옷을 만들고 남은 원단 자투리를 활용해 만들어라. •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지 말고 빌려라.
꽃	• 생화를 사용하게 되면 꽃에는 수 많은 화학용품이 사용된다. • 꽃을 들고 걷는 대신 지역의 동물들과 함께 걸어보라. • 식이 끝나면 동물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악세사리	• 최소화하라. • 악세사리에 사용된 보석이 정당하게 채굴된 것인지 확인하라. • 보석이 채굴된 지역이 분쟁이 없는 지역인지 확인하라.
기 타	• 행진을 할 때 뿌리는 색종이 조각은 모두 낭비된다. • 나비 모양의 펀치 등을 활용해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에게 전해줘라.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내 마음자리를 바라보는 '마음챙김 결혼'이 미국 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이런 사항들을 지키며 결혼을 하는 것이 미국에 유행처럼 번지는 마음챙김 결혼이다. 부처님의 불살생, 평화의 가르침과 닿아있다. 여기에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수많은 변화를 바라보니 선의 영역과도 맞닿았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결혼식, 이렇게 진행해보면 더 의미있고 기억에 오래토록 소중한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태국 불교 개혁·쇄신 활동 박차

'시줏돈 요구 및 SNS 활동 금지'…재정 투명성 기대

태국 군사정부와 불교계 압력으로 태국 스님들이 스캔들로 얼룩진 태국 불교를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에 돌입했다.

인구 90% 이상이 불교신자인 태국 국민들은 최근에 겪은 태국에서 가장 큰 사찰 스님들의 성추문과 돈 세탁 의혹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태국 군부와 불교계는 이번 스캔들로 태국의 인기 관광 명소인 수 천 개의 사찰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지시했다. 또한 9월부터 원로 스님들은 태국의 30만 이상의 스님들과 4만여 사원을 위해 더 강력한 규율을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군부와 불교계는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시줏돈을 요구하는 것을 금했으며, 사찰에서는 염주 등 불교 용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사찰 재정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동남아 국가의 중교 상업화에 대한 비난에 대응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태국불교연맹 승가 최고위원회는 스님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스님들의 생활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겪을 대중으로부터의 비판을 막기 위함이다.

승가 최고위원회 소속 프롬몰리 스님은 "이 규율은 승가 내에 이미 존재했지만 승려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엄격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인들은 사찰에 시주를 하면 선업을 쌓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찰과 스님들이 이를 악용해 부를 축적했다.

이번 개혁을 반긴다는 프롬몰리 스님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국민들의 말을 경청하며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태국 북동부의 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불교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서로 감시할 것을 명령했다. 사찰 내부에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 승려들을 서로 돌보고 독려해주세요"라는 표시판도 내걸었다.

태국 군부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태국 불교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군부는 경찰 출신의 포폰 프라사네그를 국립 불교 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한 사찰을 국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자금횡령 사건에 연루된 5명의 수도원장을 비롯, 35개 사찰과 29명의 승려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5명의 수도원장은 정경유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태국 군사정부와 불교계 압력으로 태국 스님들이 스캔들로 얼룩진 태국 불교를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에 돌입했다. 태국 군부와 불교계는 이번 스캔들로 태국의 인기 관광 명소인 수 천 개의 사찰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지시했다. 출처=방콕포스트

태국 정부는 지난 해 불교계에 53억 바트(미화 약 1억 6천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46억 바트는 태국 전역 사찰과 승려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됐다.

불교학자인 솜릿 루에차이는 "승가들이 개혁 및 쇄신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그들의 정통성을 정당화 하고 승가를 컨트롤 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승가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시키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푸미폰 태국 국왕 불교 장례, 관광객에 개방

장례식 조직위, 11월 2~30일 일반에 개방 결정

불교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식으로 치러져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푸미폰 아둔야뎃 전 태국 국왕의 다비식 장소가 일반에 공개된다.

'투데이온라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푸미폰 국왕 장례식 조직위원회는 방콕 왕국 인근 사남 루엉 광장에 설치된 푸미폰 국왕 장례식장을 국민 및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

태국은 전체 인구의 95%가 불자인 불교국가다. 하지만 종교와 문화 속에 힌두교 및 자연 종교 의식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

국왕을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주인공인 '라마'라는 이름으로 칭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례식장은 라마야나 속 신들의 세계를 웅장하고 신비롭게 표현했다. 다비식 중앙에 수미산(須彌山)을 형상화한 50m 높이 건물을 중심으로 8개의 큰 산과 바다 모형이 둘러싸고 있다.

조직위는 개방 기간 중 오전 8시~오후 5시에는 장례식장에 음악을 틀고, 오후 6~10시에는 각종 공연을 진행하는 등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말에는 크메르 왕국에서 전해진 전통 가면극 '콘'(Khon) 공연도 열린다.

방문객들은 사남 루엉 광장 중앙에 설치된 장례식장 외에도 주변에 설치된 전통 양식의 건물에서 펼쳐지는 푸미폰 국왕 관련 전시회도 둘러볼 수 있다. 개방 시간은 오전 7시~오후10시.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푸미콘 국왕의 장례식은 불교 전통을 유지하되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장엄하면서도 화려하게 치러져 대중의 이목의 쏠린 바 있다. 사진출처=680news

벨린다 칼라일, 불교로 세계 강타

10년 만에 돌아온 월드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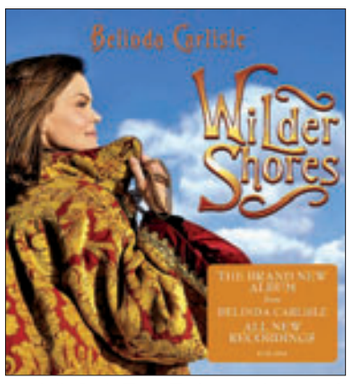
월드스타 가수 벨린다 칼라일이 불교와 함께 10년 만에 컴백했다.

80년대 이후 줄곧 세계적 사랑을 받아온 록밴드 '고고스(Go-Go's)'의 리드 보컬 벨린다 칼라일이 새 앨범 'Wilder Shores'를 발표한 가운데, 이 앨범이 불교를 테마로 만들어져 더욱 화제다.

이번 앨범은 10년 만에 발표됐으며 이전에 칼라일은 록·뉴웨이브 장르의 음악을 해왔다.

영국 언론 '레지스터가드'는 칼라일의 새 앨범을 "팝송서 불교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 새롭다. 이 정서에 낯설더라도 익숙한 팝 멜로디기 때문에 듣는데 무리가 없다. 칼라일의 멋진 목소리와 가창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질의 앨범"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레지스터가드'는 칼라일을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이나 80년대 팝을 풍미한 보이조지를 잇는 새로운 불교-팝 가수로 명명하기도 했다. 조지 해리슨은 동양의 명상세계를 접목해



80년대 유명 록 그룹 '고고스(Go-Go's)'의 리드 보컬 벨린다 칼라일의 새 앨범 'Wilder Shores'는 불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틀스 선율에 담아낸 바 있다. 보이조지 역시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유명하다.

칼라일의 히트곡이자 이번 앨범에 어쿠스틱 버전으로 실린 'Heaven Is a Place on Earth(천국은 지상에 있다)'는 기독교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노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교노래이자 성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음원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벨린다 칼라일은 미국의 가수로 81년 고고스로 정식 데뷔해 끊임없는 음반활동을 해왔다.

1991년부터 칼라일은 음반활동 수익금을 기부하며 자선활동을 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공식적으로 채식주의를 선언했다. 박진형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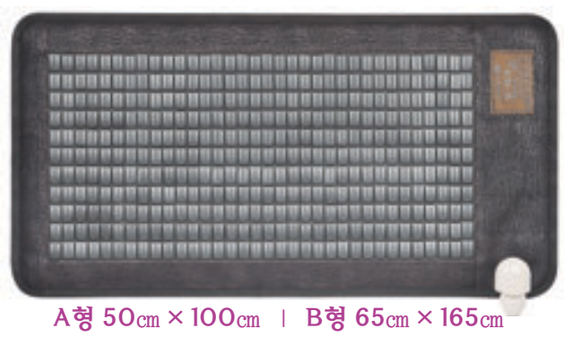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100㎝ | B형 65㎝×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면발광 LED 인등



수법 당장업일체
미단 달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부처 눈엔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㉒



선진국에 뒤처진 의식수준

명상을 하면 의식이 명료해지고 가벼우며 유쾌한 느낌이 든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 대한 집착이나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감소한다. 이처럼 명상은 우리의 주의가 외부로 흐르는 것을 막고, 마음이 들뜨는 것을 잠재우며, 망상적 집중을 막아준다. 그 결과 에고가 점차 정화되어 순수한 존재의 장을 만날 수 있다. 필자가 경험한 명상의 효과이다.

여기서 의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마음의 영적요소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혼 의식이 있다. 나의 영혼은 자신의 지배적인 의식 상태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데, '참 나'를 각성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소 장애가 있거나 흐릿할 수도 있으며, 혼란에 빠져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근본적 자연과 동일시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의식이 아직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필자는 쓰레기 버리기라는 일과 질서 지키기는 일에 불편을 겪을 때가 있다. 필자가 사는 집 앞 골목입구가 삼거리인데, 언제부터인가 그곳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이야기했더니 "경고-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하지 맙시다!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 읍장"이라고 팻말을 꽂아 두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쓰레기는 버려졌다. 필자는 그 팻말의 경고를 지키기 위해 다른 먼 곳에 있는 쓰레기 분리통에 버린다. 그리고 삼거리에 쓰레기가 차면 한두 달에 한 번씩 주민센터에 알려 치우도록 한다. 그런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뤄볼 때 벌금을 받는 것 같지도 않다. 법이 집행되지 않을 뿐더러 쓰레기 투기 행위도 멈추지 않는다. 문제는 쓰레기를 치울 때까지 매일 냄새와 흉한 꼴을 보아야 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타지에 사는 자식들에게 김치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 조금 이른 시각이라 김치박스를 문 앞에 놓고 기다렸다. 시간이 되자 안에서 문을 열었고 들어가려고 하자 뒤늦게 온 사람이 재빨리 먼저 들어갔다.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어서 속으로 '오래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먼저 들어가다니 참'이라 생각하고 불편해했으나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번호표를 받아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지나간 일이라 그냥 보기만 했지만 이런 일은 어느 곳에서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로 다투기만 한다면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30여 년 전의 일을 떠올려 본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필자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지금도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어서 이 기회에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하나는 일본에 가서 5년간 공무원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 교육공무원의 이야기다. 일본에 갈 때 데리고 간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5학년이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아빠, 전 이 학교에 못 다니겠어요. 일본에 다니던 학교로 가고 싶어요"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자 "오늘 학교 체육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에 있는 수돗가로 가는데 모두가 먼저 씻으려고 달려가는 바람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라고 하지 않는가! 이 자녀의 말로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달려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캐나다에 갔을 때 본 자동차 운전자들의 운전 태도이다. 모든 자동차들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니도록 천천히 달린다. 특히 건널목에서는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멈추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런 일은 산간을 달리는 차들도 마찬가지다. 길을 걷고 있는 사슴들을 보자 그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기회만 있으면 경쟁하듯 먼저 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할 때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위의 두 사례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의식수준이 다르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내가 우선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나보다 남, 함께라는 공동체의식이 더 깊게 배어있다. 공동체의식은 나만 보며 살다가 남도 함께 살고 있다는 의식으로 확장되면서 일어난다.

> "
> **경제적 선진국 대열 들었지만 국민 의식수준 낮은 대한민국 '함께' 보다 '나' 먼저 생각해 명상 통한 의식 확장이 필요**
> "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무수히 관계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는 경계를 짓기 때문에 일어난다. 경계는 나와 남이라는 구분의식에서 생겨난다. 경계는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해결된다. 의식의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다. 자기감정에 정직해야 한다. 감정은 경험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면 부정직한 감정이 무의식으로 남게 되어 다음에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영향을 미쳐 부정직이 더욱 증폭된다. 특히 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의식이 확장되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자신의 잘잘못을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기심과 이타심이 삶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혼자만 잘 살 것인가? 함께 잘 살 것인가?

의식을 결정짓는 3요소

이러한 인간의 의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가 '3Guna'이다. 인간은 자연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의식의 세 가지 속성인 sattva, rajas, tamas라는 세 가지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이는 우주의 5대 원소인 에테르, 공기, 불, 물,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sattva는 질서, 순수함, 빛나는 것을 나타내는 속성으로서, 인간의 맑고 밝은 의식으로 영성과 가깝다. 개인보다 더 큰 세상의 평화를 위하는 마음이다. rajas는 활동과 변형의 속성으로서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 성취하고자 하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욕망을 향해 잠시라도 쉬지 않는다. 세상보다는 오로지 자기 개인의 안위나 만족을 위하는 마음이다. tamas는 무거움과 관성, 타성을 나타내는 속성으로서 나태하고 게으르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간다. 이러한 3guna는 한 개인에게 속해있는 기질적 속성으로서 한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온전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그대로 자신의 영혼에 저장된다. 즉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영혼에 각인된다. 이 흔적들은 기억, 선호, 기질, 습관의 형태로 표현된다. 우리가 행한 삶의 경험들이 영혼에 각인되었을 때, 그 경험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만일 그 동안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면 우리는 잘 살아온 셈이다.

그러나 열심히 잘 살려고 했으나 고단하고 힘들었다면 비록 의식하지는 못했으나 습관적으로 잘못된 경험을 쌓아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영혼에 인상을 남긴다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를 보낼 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는 세상을 위한 사랑과 봉사라는 영혼의 본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혼란한 생각과 감정의 변화로 인해 영혼의식이 왜곡되고 제한되어 지성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본성인 순수의식은 변함없는 상태로 남아있지만 마음의 작용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깊이 빠짐으로 인해 그 본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 본질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감각, 감정, 그리고 심리적 작용으로부터 주의를 회수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가라앉히고 깨어있게 하여 우리의 자아의식을 영혼의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영혼의식은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넘어선 명료하고 고요한 의식의 상태이다.

이러한 영혼의식은 명상을 통해 영적인 힘을 배양할 때 가능하다. 자신에게 영혼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역할에서 초연해진다. 내가 평화로운 영혼임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또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고귀한 영혼의 존재로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들이 화낼 때조차도 수용한다. 영혼의식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고, 영혼의식은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내가 몸 안에 살아 있는 영혼임을 의식하게 되면 내 생각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나 빨리 일을 처리하겠다고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개인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지난날의 어두웠던 시절의 불행에 집착하여 현실의 막중한 과제를 놓쳐버리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라는 더 큰 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안위에 치중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영혼의식이 사트바보다 라자스에 더 편향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한 선진국으로 가기는 어렵다. 명상을 통한 의식 확장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탈종공고

- 사찰명 : 염불사
- 성 명 : 황순모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984-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30여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저자의 역리 작명법은 다른 작명법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 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습니다.

易理作名法 (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30,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10-9391-5699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대행 스님

마음이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절간에만 불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똥 누고 이러는 자체가 그대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모두 40분이고 한 시간이고 앉아서 좌선을 하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좌선하는 게 참선인 줄 알아요. 왜 참선이 못 되느냐 하면 앉았다 일어나면 참선하는 게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앉는 거, 서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즉 말하자면 좌선, 입선, 와선, 행선 이것이 몽땅 다 참선입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시간이 나면 좀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냥 눕기도 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참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앉았다 눕고, 눕다가 앉았고, 서다가 일하고 이러는 게 다 참선이니 그냥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이 그냥 참선이죠. 마음은 꽁지에 꽁지를 물고 들떠서 망상에 훌떡 그냥 넘어가는데 몸만 앉혀 놓으면 뭘 합니까? 마음이 안정돼야 그게 좌선입니다, 네? 서나 앉으나 일하나 마음이 안정된다면 그것이 바로 좌선이며 참선입니다.

그냥 우리 생활이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다면 무효입니다.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딨습니까? 미생물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여러분 오장육부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증명하느라고 벌써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인연에 따라서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까지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자꾸자꾸 화해서 나투면서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죠. 짐승으로 화해서 쫓기다가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도무지 내려갈 수가 없더랍니다. '아, 이거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선 그냥 잡아먹혔죠. 그래서 그다음에 태어날 때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거반거반 같게 나왔더랍니다. 이게 마음의 진화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 태교를 중요시하는 것도 그런 탓입니다. '이미 낳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력이 전달되듯이, 이미 낳은 어린애하고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이 방에 전구가 이렇게 많고 모습은 다 각각이지만 전력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스위치를 올리면 저기까지도 다 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거나 친구가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험을 하는 공부니까 거기다 마음을 주든가 내 마음에다가 넣든가 해서 맡겨 놓고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아, 전력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의 스위치를 누르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다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다 밝게 살 수 있구나!' 이러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그래야지 말로 해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장면에 비유한다면, 여직껏 자장면을 보지도 못했고 맛도 이름도 모르는데 자장면을 찾고 어쩌고 할 길이 없는 거죠. 아주 모르니까요. 이름도 맛도, 또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먹어 보지 않은 거는 찾아지지도 않죠? 먹어 봐서 그게 맛있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 우리 그것 좀 또 해 먹어!" 그러든가 "우리 그것 좀 먹으러 가자!" 이러지만 먹어 보지 않은 거는 찾아지지도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셔야죠. 모두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창조력을 기르는 것이요, 창조를 해내는 법을 아는 것이요, 생활이 그냥 과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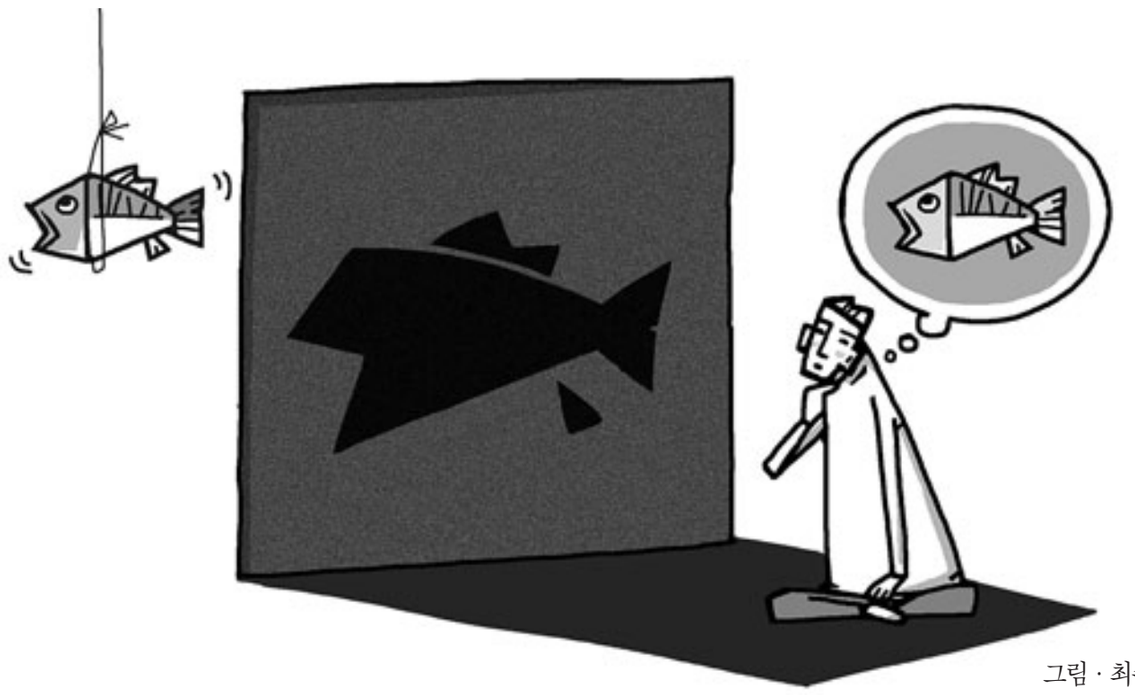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면 오늘 진주에서는 처음 개원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꼭 알아 둬야 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볼 줄 아는 거, 심안으로 들을 줄 아는 거, 심안으로 과거에 어떻게 왔는가 아는 거, 심안으로 남의 속을 다 아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이런 거를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신통을 다 해도 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숙명통을 지금 현실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나오는데 그것을 다 거기다가 일임하고 맡겨야 다시 입력이 됨으로써 앞서의 입력된 거는 없어지죠? 그렇죠?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유전성으로 인해서, 영계성으로 인해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애고를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건 왜? 거기다 입력을 다시 해 버리니까요. 나오는 데다가 되맡겨 놓으니까, 입력이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다 편안해지니까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가정도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니까 생활이 잘되고, 생활이 잘되니까 사회도 마음이 건전하게 돌아가죠. 허허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좋은 겁니다.

그러니 숙명통을 지금 말로 심성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지금 그 컴퓨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정말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팔자 운명을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고 그 자리에서 입력이 돼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방치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건데 지금은 전부 기복으로다가 가르치고 있으니 자기 속에서, 이게 오신통이거든요. 어떻게 오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신통을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지금 이거를 목마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도 있어야만이 바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신통 그릇 안에서, 항아리 안에서 딱 벗어나서 보면 자유스럽게 항아리를 굴릴 수가 있죠. 항아리 속에서는 항아리를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 여기 앉아서도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죠.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앉으셔서 집에 좀 갔다 온다 해도 한 찰나에 갔다 오실 수 있지요? 지금 집에 갔다가 오실 수 있겠죠? 허허허…. 그렇게 마음이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것이 버스라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오장육부의 모든 중생들이 지금 여러분이 부산을 가는지 진주에 왔는지 그거 모를 겁니다. 이게 참 아주 묘한 도리죠. 여러분이 움직이고 다니게끔 속에서 모두 작용은 해 주지마는 자기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그걸 몰라요. 지구에 붙어서 살면서도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우리 중생들은 몰라요. 지금 인간에게 붙어서 사는 것인데도 인간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또 몰라요.

그러니 모두가, 삼합이, 사부주가 맞아야 같이 혼합해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것이 시공을 초월했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백 개라도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천 개라도 하나로 할 수가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평등공법이며 활궁공법이며 수레공법이구나.' 이런 도리를 진주 여러분이 모두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내 몸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체험을 하고 아신다면, 핼리 혜성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구 동네에 와서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핼리 혜성이 될 줄 알 겁니다.

구렁이가 사람들 못 다니게 길을 가로질러 걸쳐져 있으니까 달마 대사가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서 구렁이를 끌어다가 딴 데 갖다 놓고 다시 오듯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현명한 도리입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꼭 배우셔야 될 겁니다. 이런 인연 만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천 년 만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다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마음의 구조도 바꿀 수 있고 체질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있고 정신계의 대권,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좀 해 보시죠. 이해가 안 가

☞ A18면으로 계속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밭 죽순 식물성 탈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2,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밭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여러분이 계시는 까닭에 부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 A17면에서 계속

시는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 넣고 그래서 한 밥그릇이 다 비워져야만이 배가 부른 것을 알게 되죠.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질문자1(여) 스님, 전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전생을 알 수 있다면 좀 더 어리석음을 짓지 않을 것이고 깨달음도 빠를 것인데, 저희들은 어째서 깨닫기 전에는 전생을 모르는지요? 부딪치게 될 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아, 조금 아까도 전생인데요. 하하하…. 한 시간 전의 전생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생에 닥치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닥쳐오죠. 그러니까 전생이다 후생이다 할 것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시공을 초월해서 만 년 전이라도 오늘이 됩니다. 그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삼정례를 하다가도 바쁠 때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한데 합쳐서 일심으로 일정례를 해도 된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며 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생각에 일정례로 만 번의 절을 할 수가 있고, 삼정례로 삼만 번, 삼십만 번의 절을 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고 '내가 절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 그냥 절을 하는 것이 진짜고, 내가 절을 하고 싶지도 않고 바쁜데 '이걸 꼭 해야겠다' 하고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삼십만 번을 해도 진짜가 아닙니다.

목에다 염주를 걸고 다니죠? 이거는 그냥 세상 우주를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을 염주로다가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백팔 번뇌를 그걸로 비유를 해 놨는데, 그걸 백팔 번뇌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면 목석이죠? 육체가 없으면 무효죠? 생명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 생각 나는 것을 망상이라고만 밀어붙이겠습니까? 생각 생각 나는 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라고 봐야죠.

팥죽을 끓이는데, 익으려고 그러면 팥죽 방울이 수없이 올라오죠? 그럼 그거를 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팥죽 방울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팥죽이 익으려고 팥죽 방울이 끓죠? 하하하…. 그러니까 팥죽 솥에 팥죽 방울 일어나듯이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 망상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입니다. 팥죽을 익히기 위해서 팥죽이 끓는 거와 같이 그건 성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거기다가 일임해서 놔야죠.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면서 온통 백팔배를 하고 천배를 하고 아무리 몸뚱이로 그래 봤자 몸뚱이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는데,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공덕이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말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누가 묻기에 내가 대답을 그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으로 아촉도 되셨다가 아미타도 되셨다가 관세음도 되셨다가 지장도 되셨다가, 칠성도 됐다가 산신도 됐다가 용신도 됐다가 지신도 됐다가 또는 문수도 됐다가 보현도 됐다가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다가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할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형님이 됐다가 금방 아우가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하!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건 어떡합니까? 허허허…. 아니, 그렇게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가지각색의 이름이 그렇게 많고, 행하는 게 그렇게 많고, 가고 오는 게 그렇게 많아도 가고 옴이 없다 이 소립니다.

한 포기만 살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계신 겁니다. 그러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자2(여) 스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고 돌려서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 안됩니다. 이렇게 큰스님을 뵈었을 때 주인공에게 되돌려서 생각하는, 맡기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깨닫는다는 말조차도, 이름조차도 생각하지 마세요. 깨닫는다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뒤따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또 내 마음 자체가 전부 용광로라고만 생각하세요. 재생돼서 자동적으로 나가게 하려면 용광로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놔야 스스로 녹아서 그냥 재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바퀴요, 용광로요, 바로 자가발전소입니다. 자가발전소도 되고 용광로도 되고 바로 불바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치 말고 거기다 맡겨 놓고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리를 알게 될 겁니다.

질문자3(남) 저희 중생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고 또 실수가 있는 법인데, 제가 꼭 여쭈어 볼 것은, 깨달은 분은 실수가 있는지요, 없는지요? 그것을 꼭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즉 말하자면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한창 돌아갈 때는 보이지도 않죠?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죠? 지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딱 걸렸을 때에 내 마음이 걸린 거지 그 프로펠러가 걸린 게 아니죠? 그러니 실수를 해서 마음에 걸렸다 하더라도 마음을 빨리 돌려서 '어! 이렇게 안 돌아가게 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돌아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 딱 놨을 때에 제창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가 아니라 마음에 걸렸던 게 풀어지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꿔 놓는 것이 활궁공법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수레공법이라고 하죠. 또 가만히 있으면 부처다 하는 건 평등공법이죠. 하하하…. 이 모두를 여러분 자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먹어 보지를 못해서 맛도 모르고, 어떻게 해 먹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것도 못 보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기복이 아니고, 모두 각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깨달아서, 즉 말하자면 어린애를 낳아서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고 자유스럽게 살라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와 같습니다. 나를 깨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갓 나온 어린애와 같은 거니까요. 두 번째, 깨치는 거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둘이 아니게 나투는 까닭을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르러 열반계로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4(여) 그럼 답답한 마음도 용광로에 놔야 됩니까?

큰스님 그렇죠!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물리가 터지고 거기서 알아야만 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을 가다가도 엎드러지면 길을 딛고 일어나야지 딴 데다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답답한 걸 호소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나온 자리에다 되놓고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 아니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가고 오는지도 모르게 해결이 나는 겁니다. 물질로써 하는 게 아니니까 참 그게….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살려면 이 도리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또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자5(남) 멀리서 왔습니다. 오늘 꼭 한 가지를 여쭤 볼까 하고요. 놓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잘 놓는 건지요? 그리고 금강경도 읽고 싶고 육조단경도 읽고 싶고…, 지금 법어집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스님 법어집은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안 되는지요?

큰스님 책을 읽더라도 책이 선생님을 보지 않고 선생님이 책을 보지 않는다면, 그 글자와 백지를 같이 보는 게 돼서 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 책을 본다 하고 보고, 또는 책이 선생님을 본다면 그거는 안 되는 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걸어오실 때에 한 발 딛고 한 발 놓고, 한 발 딛고 한 발 놓고 그러고 올라오셨지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네?

질문자5(남) 아니지요. 그러면 그걸 읽어도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다 놓으라 이런 말입니까?

큰스님 놓고, 이 몸뚱이가 텔레비전이라면 텔레비전 속에 들어 있는 그 화면을 나오게 하는 근본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하자는 대로 육체는 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너만이 나를 보게 하기도 하고 듣게 하기도 하고, 가게 하기도 하고 오게 하기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네가 다 하는 거다!' 하고선 보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선 또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놓으시고 한번 체험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여기에서 일요일마다 비디오 법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열심히 들으시고 책도 보시고 차에 카세트테이프도 넣고 다니시면서 들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몸 떨어지면 공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 떨어지기 전에 공부들 열심히 하십시오.

※위 법문은 1992년 11월 29일 진주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팔자 운명을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고 그 자리에서 입력이 돼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주의 여러분이 이 도리를 확실히 아셨으면 합니다. 저 부산에서나 울산에서나 마산에서나 또는 광주에서나 대구에서나 눈이 그냥 샛별같이 청정하게 지금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바로, 아래로는 썩은 뿌리를 끊어 주고 새 뿌리를 나게 하는 것이요, 위로는 이파리와 가지를 싱싱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신을 낳아서 키워서 보낸 그 은혜도 이 도리를 공부하면 다 갚게 됩니다. 지수화풍의 은혜도 둘이 아닌 까닭에, 전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갚았다 안 갚았다도 없이 그냥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가 무너지고 유전성이 무너지고 영계성이 무너지고 세균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모진 병고에 휘달리지도 않을 겁니다.

현명하게 사십시오. 아주 현명하게 말입니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해도 그건 아주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시도록 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서 가르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천 년 전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까닭에 부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풀

'난 깨달아야겠다!' 이러고 안간힘을 쓰면 더 깨달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그것이 없이 그대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그 모두가 주인공에서 하는 것이니 마음으로 잘 굴려서 거기 맡겨 놓으세요. 이런 게 있죠. 하인을 뒀다 하더라도 "너 이렇게 이렇게 심부름을 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야 해 가지고 오지 "너 알아서 해라!" 이러면 어떻게 심부름을 합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글쎄! 비유를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 해 주시오!' 해도 안 됩니다. 둘로 되기 때문에요.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야 네 심부름을 하잖아?' 하든지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어떤 용도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주인공, 이거를 해 주시오!' 이런다면 관세음보살을 바깥으로 찾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둘로 보지 말고 꼭 그렇게 하세요. 질문하실 것 또 없습니까?

질문자3(남) 큰스님 말씀에, 되지도 않는 질문도 하면 되는 법이 있다 해서 제가….

큰스님 하하하…. 그래요!

급변하는 이 시대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어떻게 살 것인가

경남 교육연수원 지정
특수 분야 직무 연수(2학점)

- 연수기간 : 2018년 1월 10일 09:00 ~ 1월 12일 17:00 (2박 3일 27시간) / 1월 18일 09:00 ~ 12:00(3시간)
- 연수대상 (인원) : 유, 초,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20명
- 연수장소 :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 연수비용 : 1인당 자비 부담액 5만원 (숙박비 없음)

나는 쉬고 싶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비움의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연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일 ~ 12월 8일
- 주요 강의 내용 :
  1일 :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을 여는 대화
  2일 : 마음의 원리,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3일 : 마음의 활용, 마음과 소통, 변화하는 나
- 신청문의 : 이메일, 전화로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서와 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이 메 일 : kmsjooin0@naver.com / yik308@hanmail.net
- 전화문자 : 010-2529-7595 / 010-7442-1586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아름다운 자연 속
치유와 힐링의 공간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2박 3일간의 마음 여행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 3,000불 /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 불자 세상보기 |

경찰위상, 시민의식과 직결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

경찰, 국민 안전 책임지는 국가기관
경찰 폭행부터 정당 법집행 嘲笑까지
과연 이 나라 공권력은 살아 있는가

공권력 붕괴가 일반화가 된 원인은
위정자 부화뇌동한 경찰 권력 때문

공권력 지나쳐도 붕괴돼서도 안돼
경찰권 무너진 러시아 반면교사해야
공권력 바로 세워 시민 수준 보여야

경찰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거나 경찰 관련 교과서에 화두처럼 등장하던 경구가 있다. 'Community deserves police!'라는 말이다. 한 나라의 경찰 수준은 그 나라 시민과 사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의 수준에 맞는 수준의 경찰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과 사회의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경찰의 수준도 높은 반면, 사회와 시민의 수준이 낮으면 경찰의 수준도 그 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다.

무릇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며, 범인을 체포하는 사명'을 가진 국가권력이다. 이런 면에서 경찰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요 국가권력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전쟁과 굶주림이었다면, 냉전의 종식과 경제개발로 전쟁과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나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이 곧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져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방송 등 언론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접하는 파출소에서의 취객들의 경찰관을 향한 폭력 등 경찰관서에서의 난동은 물론이고, 불법시위대들의 폭력과 기물파손 등 심각한 공권력에의 도전과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 정당한 법집행을 비웃는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이 나라의 공권력은 살아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권력 붕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공권력을 파괴하는 행위자에게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그러한 현상이 일반화 내지 빈번하게 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은 경찰권력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의심받아온 우리 경찰의 슬픈 역사에서 시작되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 민주화로 정권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사라졌음에도 경찰권에 대한 정통성은 정치권이나 위정자, 그리고 그들에게 부화뇌동하는 경찰의 처신으로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 공권력, 즉 경찰권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경제 질서 등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 지 잘 알고 있다. 당연히 경찰권이 지나쳐서 경찰국가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경찰권이 붕괴되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현직 워싱턴 DC의 시장이 1인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불법시위자로 경찰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누구 한 사람도 폴리스 라인을 단 한 발짝도 넘지 않을 정도로 경찰권이 엄격한 반면, 경찰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경제와 사회 상당부분을 마피아가 장악한 러시아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경찰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선택은 분명해졌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통제되지 않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아노미(Anomie), 즉 무규범(Normless)의 사회가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그 중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힘든 취약한 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국가 공권력의 약화나 붕괴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 모두의 안녕과 안전의 문제이기에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파괴는 곧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는 곧 경찰은 물론이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곧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여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기도 하다.

당연히 공정한 법집행과 인권의 존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고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도전이나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 서지 않은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社說

'환희의 불교' 이끌 조계종 되길

설정 스님이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행정수반이 된 설정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장장 5페이지에 걸친 취임사를 불자와 국민들에게 전했다. 스님이 중요하게 내세운 가치는 '불교다운 불교'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수행가풍과 승풍을 진작하고,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준비된 원고보다는 법회 직후 우정국로 특설무대에서 대중에게 호소한 설정 스님의 진심이 더욱 돋보였다.

'무시선 무처선(無時禪 無處禪).'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할 때 복덕과 지혜, 용기와 자비가 생겨난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면서 신심과 원력, 공심이 없고 염불이든 참선이든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제자가 아니라는 스님의 외침에 수천여 대중은 환호로 화답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다만 불제자들이 주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불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승가가 우선적으로 바로서야 한다. 현재 한국불교는 갈등과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수년 전부터 곳곳에서 불교계 의혹이 제기됐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그래서 설정 스님은 선거과정서 제기된 비판을 자신의 부덕과 불찰로 돌렸다. 대중의 경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제 한국불교는 새로운 발걸음을 떼야 한다. 대화합을 위한 방안 강구에 힘을 쏟고, 사부대중이 함께 호흡하며 시방세계를 품어 안아야 한다. 장자종단 조계종이 이에 앞장선다면 설정 스님이 외친 종도들의 '환희작약(歡喜雀躍)'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도난 성보에 범불교적 관심 가져야

도난됐다가 다시 환지본처한 성보들이 잇달아 보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고성 옥천 지장보살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를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693호에 포함되어 지정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는 시왕도 10폭 중 1976년 도난당해 행방을 알 수 없던 2폭 중의 1폭으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견되어 원래의 장소였던 고성 옥천사에 다시 봉안된 역사적인 성보이다.

특히 "작품의 완결성을 한층 높여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시왕도 중에서도 구도, 색채, 필선, 인물의 표현 등 양식상 완성도가 높아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정 신청한 대비사 영산회상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보문사 삼장보살도 등 3건 3점의 회수 도난 성보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4년 8월 종단과 문화재청, 경찰청의 공조로 문화재 은닉범을 검거해 환수 조치한 것이다. 이후 조계종은 관계기관, 피해 사찰들과 공조해 31건 48점의 성보를 찾고, '다시 찾은 성보 이운고불식'을 열었다. 약 1000여 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번 환수 성보들의 잇달아 보물 지정과 지정 예고가 된 것은 어딘가에 있을 도난 성보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성보일 경우 더욱 그렇다. 조계종이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도난 성보 환수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도난 성보 환수에 범불교적 관심이 커지길 바란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어느 날의 윤회이야기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어느 늦여름 아침, 불보종찰 양산 통도사의 유명한 '무풍한송로(舞風寒松路)'를 스님과 함께 걸었다.

붉은 빛을 띠며 하늘로 쭉 뻗은 금강송들이 뿜어내는 입김은 아침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3년만의 '경행'(徑行)이다.

3년 전, 우린 유학생이었다.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면, 향수병에 사로잡힐 때면 함께 살던 집 근처 메이지 신궁(明治神宮)의 잘 가꾸어진 도심 속 정원을 자주 걸었다. 우린 그것을 경행이라 불렀다.

메이지 왕을 신으로 기리는 메이지 신궁은 도쿄 도심 한가운데 70만평에 달하는 광대한 토지에 전국에서 헌공한 나무들로 가득 채워 조성하여서 도심 한가운데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끼 낀 아름드리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스님, 메이지 왕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스님께서는 윤회를 당연히 믿으시겠지요?"

스님은 웃으셨다. 답은 상관없었다. 도심 속에서 느끼는 숲속 정취가 좋아 우린 그저 걸었다.

"정 선생님, 위를 한번 올려다보세요. 저 하늘로 뻗은 나뭇가지와 거기서 자라난 잎사귀들은 옆 나뭇가지의 크기에 맞춰서 일정한 간격을 비워두고는 서로의 영역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요? 절대 더 자라거나 작게 자라지도 않으면서, 서로 눈이 있어 본 것도 아닐 텐데 옆 나뭇가지가 튀어나오면 그 옆 나무는 들어가 주고…. 그러면서 남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경계선이 명확히 지켜지고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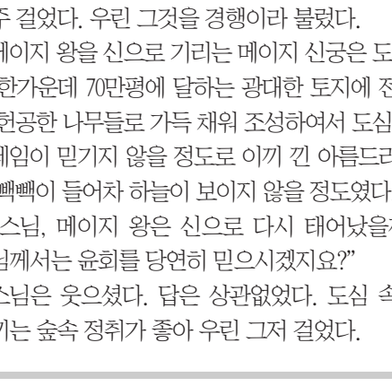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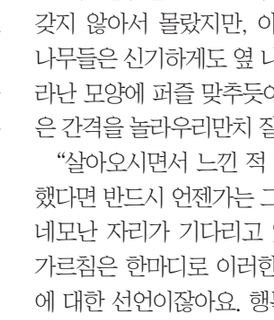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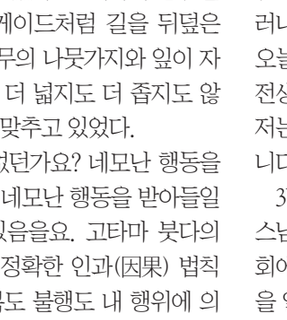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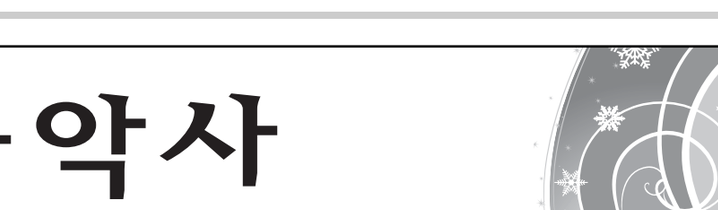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랬다. 그때까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몰랐지만, 아케이드처럼 길을 뒤덮은 나무들은 신기하게도 옆 나무의 나뭇가지와 잎이 자라난 모양에 퍼즐 맞추듯이 더 넓지도 더 좁지도 않은 간격을 놀라우리만치 잘 맞추고 있었다.

"살아오시면서 느낀 적 없던가요? 네모난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네모난 행동을 받아들일 네모난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을요.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러한 정확한 인과(因果) 법칙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행복도 불행도 내 행위에 의한 결과일 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우연이니, 신이니, 운명이니 하는 것을 개입시키지 않았지요. 결국 중생들의 세간(世間)이란, 마치 누에가 자기 몸에서 뽑은 실로 고치를 만들 듯 스스로의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 저지른 행위가 쌓아올린 세상일 뿐이지요.

윤회라…. 아직 죽지 않아 다음 생을 모르겠고 1년 전 일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아 전생의 기억은 더더욱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 지금의 행동은 저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반드시 언제 어딘가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러니 지금의 나도 어제의 결과물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결과물이겠지요.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이, 전생·이생·내생이 이렇게 이어져 하나일 뿐이니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려 할 뿐입니다…."

3년 만에 만나 무풍한송로를 걸으며 그래서 나는 스님과 다시 윤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윤회에 대한 '믿음'이 아닌, 스님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계실 뿐이었기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소백산 용두리 신품종 호두는 알이 크고 속살이 실하며 깨기가 쉽습니다.
토종호두보다 인기 많고 가격이 높은 이유입니다.
간혹 거뭇한 호두알은 겉껍질 색이 착색된 것입니다.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향긋한 소백산 용두리 햇호두,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
수차례의 선별작업으로 속이 비거나 기준보다 작은 호두알은 걸러냈습니다.
그래도 기준 이하의 호두가 있을까봐 조금 더 넉넉히 담았습니다.



100% 국산 무농약
제초제 쓰지 않은 청정호두

1 kg 28,000원 (택배비 3,000원 별도)
2 kg 56,000원 (택배비 무료)

■ 주문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 입 금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화(小)



행복한 세상(大, 小)



선화의 향기(大, 小)



선으로 가는 길(大, 小)



천진불(大, 小)





달마도(大, 小)



붓다의 향기(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관음도(大, 小)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밝고 향기롭게(大, 小)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

‘뚝심의 리더십’ … 조직변화, 사옥건립 추진 박차



선상신 사장은… 1960년 11월 9일 부산에서 출생, 1979년 서울 용문고를 졸업하고 1985년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아울러 2002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 석사 졸업, 2013년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 졸업했다. 1989년 BBS불교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 정치경제보도부장, 해설위원, 보도국장과 한국언론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1993년 방송기자클럽 보도제작상, 1995년 방송기자협회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불교방송 제 9대 사장을 맡고 있다.

INSIDE

B3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하련거 거사

B5 문화 불일미술관 ‘오숙진’ 특별전

B6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봉화 청량사 가는길

리더에게 聽하다

선상신 사장 (BBS불교방송)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이 2015년 9월 취임한 후 2년이 지났다. 4년 임기 중 전 · 후반기 분기점을 맞은 것. 선 사장은 취임 전 재정난에 빠져 있던 BBS불교방송의 회생을 위해 후원회인 ‘만공회’를 조직, 방송포교에 대한 초종단적 불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 경영 정상화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BBS불교방송 공채 1기 출신으로 BBS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경영 마인드로 승화, 최근에는 대대적인 상암 사옥 불사에 뛰어들어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10월 20일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 계획을 듣기 위해 선상신 사장을 만났다.

대담=김주일 편집국장 · 정리 박아름 기자 · 사진 노덕현 기자

취임 후 재정 안정화 위해 전력

2015년 9월 취임 당시 잔고 3억 직원 월급 부족할 만큼 어려움 커

내부 갈등 · 신뢰 추락이 큰 원인

신뢰 회복 위해 전국 돌며 호소

탕평책 · 프로그램 질 향상 도모

인사 개편, 사내 소통 경로 확보

종단협 · 진흥원과 관계 회복도

코바코 광고 확장 유치 위해 노력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도 고심중

Q. BBS불교방송은 한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정상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어떤 부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나요?

A=그동안 2년은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스템 및 재정적 위기에 처한 BBS불교방송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BBS불교방송은 제가 취임할 당시 잔고가 3억원 밖에 없었습니다. 전 직원의 한 달 임금만 7억원이상이 소요되는데, 3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재정난 탈피를 위해서는 BBS에 대한 안팎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 과제였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BBS는 각종 내부 갈등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 광고 등 재정 통로가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대적인 탕평책을 통해 직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BBS 설립의 근간이 되는 두 기관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진흥원의 관계를 원만히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님을 사내 월례조회에 초청해 격려 말씀을 듣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진흥원에서도 재도약하고자 하는 BBS의 진정성을 느끼고 재정적 지원을 늘렸습니다. 또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광고 유치를 확장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모든 방송사의 코바코 광고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기업을 중심으로 TV 광고를 대폭 유치해 지난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광고도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힘쓸 예정입니다.

Q. 재정난 회복에서 BBS 방송 포교 후원회인 ‘만공회’의 역할도 컸을 것 같습니다. 만공회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4만 명을 돌파했다고 알려지는데요, 만공회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A=BBS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진흥원을 주축으로 설립됐지만, BBS의 진정한 주인은 2,000만 불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만공회’입니다. 재정난 회복뿐 아니라 불사 과정에도 동참함으로써 불자들에게 BBS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만공회를 꾸려가며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취임 후 매일 아침 회사 법당에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만공회’를 시작하긴 했는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염원하니 주변에서도 믿음을 갖고 지켜봐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월 예산 중 2억원이 모자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계속 외고 염원하면 거짓말처럼 그 정도만큼을 기부하겠다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공덕이 관세음보살님이 도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공회의 후원금은 BBS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됩니다. 노후한 장비 교체를 비롯해 프로그램 제작, 방송망 확충, 상암 신사옥 불사 등에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의 원력이 있었기에 BBS가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약 4만7,000명을 공덕주로 모셨고, 목표치인 10만 명 중 절반인 5만 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향후 남은 임기 2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A=현재 최대 과제는 BBS글로벌미디어센터 상암 사옥 불사입니다. 현재는 토지만 매입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 비용을 모연해야합니다. 모연과 건축 과정이 단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임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상암 사옥은 제작 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현재 마포 사옥은 업무용 빌딩이기 때문에 스튜디오로 활용할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스튜디오를 개조해 TV 스튜디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안으로 외부 스튜디오를 임대하기도 했으나, 한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상암 사옥을 통해 24시간 생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제작 여건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향후 BBS글로벌미디어센터 부산 사옥도 추진이 되면 이를 중심으로 사찰음식, 명상 등 불교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안정 구조를 갖추고 BBS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BBS제주 개국을 통해 제주에 부처님 법음을 널리 펼치는 일에도 주목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인구의 23.4%, 종교인구의 55.7%가 불자입니다.

B2면에 계속



2017년 10월 18일 거룩한 만남 성금전달 모습.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공채1기로 입사해 불교방송의 초창기 과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이다. 그래서 더욱 BBS불교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1989년 공채1기 입사후 월정사 연수 당시 모습.(사진 첫열 오른쪽이 선상신 사장)



2016년 5월 탈렌트김혜옥 씨의 만공회 후원금 전달식.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 … 후원 통로를 열다”

BBS 다시 일으킨 ‘만공회’ 신화

“불교방송 주인은 2,000만 불자”
현재까지 4만7,000여 회원 확보
안정적 재정 기반에 큰 도움 돼
노후화된 장비 교체, 불사까지

제2의 방송포교 기지 ‘상암 사옥’

인프라 안정 확보 필요성 절감해
‘BBS글로벌미디어센터’ 불사 원력
현재 부지 매입 상태… 모연 시작
생방송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목표

‘선상신 사장’ B1면에서 계속

하지만 현재 극동방송과 CBS만 정규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3월 BBS제주 개국 허가가 나면서 내년 초파일 쯤 방송 송출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FM이 개국한 지 10년 만에 이뤄낸 지방국 개국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Q. 교계 방송포교의 현주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와 한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A=교계 방송사는 BBS와 BTN불교TV 2곳이 있습니다. 타종교 채널에 비해 매체수는 부족할지 몰라도, 2곳 모두 종교채널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상생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좋은 콘텐츠를 만듦으로써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한계점은 있습니다. 다매체 · 다채널의 시대기 때문에 기존 콘텐츠로는 살아남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계 방송사는 특화된 불교 콘텐츠로 승부해야만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양질의 불교 콘텐츠를 보기 위해 BBS와 BTN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화되고 세련된 콘텐츠를 생산해 수요를 충족시켜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BBS는 부처님 사상을 전하는 ‘글로벌 미디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해외 불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불교가 위기라지만, 전 세계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불교 사례도 폭넓게 다룸으로써 콘텐츠 확장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Q. 방송, 신문을 포함한 교계 언론 매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교계 언론 종사자들은 일반 언론과 달리 불교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현상을 취재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애정을 갖고 관찰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도 훨씬 풍부해질 것이며, 기자 개인과 각 언론사의 색깔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Q. 교계 언론의 가장 큰 딜레마는 ‘비판과 외호 · 포교 기능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둘 다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BBS는 궁극적으로 ‘포교’를 위해 탄생한 매체입니다.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 출범한 언론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정법(正法)에서 어긋난 일이라면 비판도 해야겠지만, 우선적인 역할은 불교 외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BS는 일반 사회에서 불교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적극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불교 내부의 분란을 정치적 기사로 다루는 것은 자제하되, 불교 교권이 침해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Q.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라디오’ 매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침체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BBS는 라디오 개국으로 출발한 만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A=과거에는 BBS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각 매체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제작, 편집해야하는데 TV 프로그램을 일부 가공해 라디오로 편성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에 현재 BBS는 라디오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수행시대’ 등 불교를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생방송 제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생방송 제작비를 대폭 확대하고,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거의 생방송이 이뤄집니다. 생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자연적으로 프로그램의 질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BBS불교방송은 라디오 개국으로 출발했지만, 2008년 TV 개국까지 이어지며 저변을 확장했습니다. TV 매체를 통해 BBS가 걸어온 길, 또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BBS 라디오는 종합편성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반해 TV는 불교 전문 매체로서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라는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대거 생산해 ‘불교 교육 전문 채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합니다. BBS의 대표 프로그램 ‘붓다 패러다임’은 지난해 ‘PD저널’의 ‘오늘의 추천 방송’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시청률도 종교채널 가운데서는 높은 편으로, BBS만의 색깔을 찾아간다면 더욱 성장할 것이라 봅니다.

Q.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바일 콘텐츠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BBS는 최근 애플리케이션 개발, 타사 애플리케이션과 협업 등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강화에도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뉴미디어 개발에서 BBS의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A=뉴미디어는 ‘짧은 시간’이 핵심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습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콘텐츠를 모바일용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분짜리’ 콘텐츠를 생산해 보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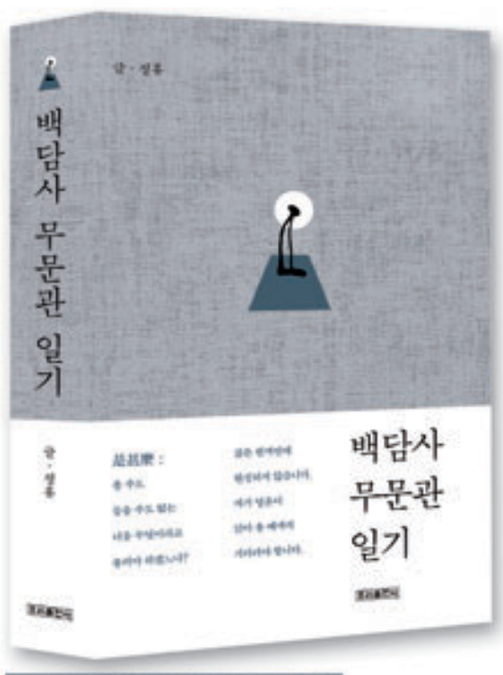
BBS는 올해 ‘뉴미디어 TF팀’을 발족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내년에는 이 TF팀을 정식 부서로 조직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BBS가 추구하는 역할과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풀 대안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불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BBS는 12월 중 ‘화쟁토론’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사회 현상을 부처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BBS 라디오에서 ‘탈원전’ 사안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으로 바라본 관점을 다뤘는데, 시청자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불교판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지식인들이 모여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BS는 이처럼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밀접하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是甚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죽음 언제든 온다는 걸 알면
마음 비우고 살아갈 수 있어”
“집착 내려놓을 때 내적 성숙 가능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 돌아보길”

백담사
무문관
일기

글 · 정휴/신국판 양장/16,000원

그는 몸과 마음에서 無碍의 자유를 풀어내는 雲水이다.
衲僧과는 평생 把手共行한 寒山 같은 도우이다.
일찍이 禪敎를 全錄掌握한 宗門의 聖骨이나 기꺼이 범추를 박대하지 않으니 그 法衣는 강호를 덮고 남았다.
陋巷에 머물 때는 승단이 불조혜명의 구심처가 되도록 온몸을 던지고 蘭若에 들어서는 생사의 關頭에서 任運自在를 보여준 法主가 바로 禪師다.
거년에는 설악산 無門關에서 保任하더니 門 없는 門을 부수고 나와서는 드디어 천하에 한 물건을 내놓았다. 그 末後句는 一隻眼을 얻은 작가 宗師라 할지라도 혀를 빼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납승은 더 이상 보아야 할 눈도 말해야 할 입도 없다. 왜 그런지는 책을 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조실 무산오현 –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표현하는 一言一句가
古劍처럼 빛났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㉒ 하련거 거사

무량수경 보급, 염불중흥 토대 닦다

"참선을 닦는 사람도 무량수경을 독송해야 합니다. 이 법문은 곧 '위없이 깊고 미묘한 선'(無上深妙禪)이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이 곧 자성이고, 정토가 유심(惟心)이기 때문입니다." -〈무량수경 합찬(合讚)〉

무량수경 5종 역본 회집
수지독송 중요성 최초 알려
200지회 둔 정종학회 창립

1억 명이 수지하는 '무량수경' 회집

역사상, 염불행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독송하는 경은 단연 〈아미타경〉이다. 하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정토 경전은 〈무량수경〉이다. 〈아미타경〉을 소경(小經)이라 하고, 〈무량수경〉을 대경(大經)이라 하여 함께 독송하는 이들도 많지만, 〈무량수경〉의 축소판이 〈아미타경〉이기에 〈무량수경〉을 집중적으로 수지독송하고 사경하는 염불행자들이 늘고 있다. 전세계에서 약 1억 명이 수지독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량수경〉이 최근 50여년 만에 폭발적으로 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단연, 하련거(夏蓮居, 1884-1965) 거사의 공덕 때문일 것이다. 그는 원문이 너무나 상이해 수지하기 어려웠던 〈무량수경〉의 5종 역본을 빠짐없이 회집(會集)한 '〈무량수경〉 선본(善本 또는 회집본)' 즉,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淸淨平等覺經)〉을 제창하여 〈무량수경〉 수지독송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널리 알린 대덕(大德)이었다.

하련거 거사는 정토오경일론(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능엄경 염불원통장, 왕생론)을 소의경전으로 하면서도 이 가운데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한 염불수행단체를 1939년 창립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정종학회(淨宗學會)'이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지구촌 5대륙에 2백여 지회가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정종학회는 〈무량수경〉을 수지독송하는 한편, '나무아미타불' 칭명염불로 세계적인 염불수행 붐을 이끌고 있다.

선종과 밀교 통달한 후 정토 귀의

하련거 거사의 본명은 하계천(夏繼泉)이며, 자는 부재(溥齋), 호는 거원(渠園)이다. 거사는 중년 이후 전수염불을 닦으며, 이름을 연거(蓮居)로 바꾸고 호를 일옹(一翁)이라 하였다. 거사는 1884년 3월 20일 산동성 운성에서 청나라 운남제독 하신유(夏辛酉)의 장자로 태어났다. 청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직예지주, 정해지현, 강소지부 등을 역임하고, 신해혁명 후 산동성 각계연합회 회장에 추대되어 산동 독립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하련거 거사는 젊어서 학문에 뜻을 두어 다양한 서적에 정통하였고, 성상性相(본성과 현상)의 이치에 대해 깊이 연구했으며, 시 · 서화 등 예술분야에도 뛰어났다. 중년의 나이에 은밀히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해 선종에서부터 교학까지, 그리고 현교에서 밀교까지 모두 원융하여 걸림이 없었으며, 마지막에는 팔만대장경이 '나무아미타불' 6자로 귀결된다는 확신을 얻어 정토로 귀의하였다.

폐관 정진으로 아미타불 · 무량광 친견

1925년, 청나라 말기 비적 출신의 장군으로 품행이 악랄한 군벌(軍閥) 장종창(張宗昌)이 산동성의 도독(督魯)이던 시절, 거사에게 근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몰수하고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자 그 화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44세인 1927년 귀국한 뒤, 거사는 이름을 연거(蓮居)로 바꾸고 오로지 정토 수행에 매진하였다. 사람과 왕래하는 관문 나루(關津)의 문을 닫아걸고, 거처하는 방에서 아미타불 불상을 모시고 일심으로 거룩한 명호(나무아미타불)를 경건히 염불하였다. 10여 년의 간절한 염불정진 동안 감응도교(感應道交; 염불행자의 정성이 아미타불의 가피로 나타남)를 이루어 상서로운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났다고 제자들은 전한다.

하련거 거사는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무량한 광명을 보았지만, 그 경계를 공개적으로 내보이지는 않았다. 청말 민국 초의 혼란한 시대상황에서는 불가사의한 가피와 감응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으리라.

'극락에서 온 보살의 화신'으로 불려

하련거 거사는 〈정어(淨語)〉에서 당시의 염불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 한 권의 경전(一卷六字經)/ 굴러서 천년의 암흑을 깨뜨리네(轉破千年暗)./ 남들은 내가 염불한다 말하지만(人云我念佛)/ 나는 불념(佛念)한다 말하겠네(我說是佛念)./ 미혹의 구름, 자욱한 안개 겹겹이 지나가고(迷雲陳霧重重過)/ 문득 맑은 연못에 달그림자 원만하여라(瞥見澄潭月影圓)."

이 게송에서 '불념(佛念)'은 자기와 부처님 명호가 혼융일체가 되어 자성미타(自性彌陀)가 스스로 염불하는 이(理)일심불란의 경지이다. 선종과 밀교수행에 두루 달통한 거사의 수행경지는 그가 남긴 어록을 보고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후인들은 그를 '극락에서 다시 온 보살의 화신'이란 의미의 재래인(在來人)으로 존중할 정도였다.

명호와 하나 된 일심불란 이루면 '견불'

1931년, 9 · 18 만주사변이 터져 국난이 매우 심각해지자, 하련거 거사는 제자들에게 세상사에 관심을 두지 말고 조용한 도량을 정해서 염불에 전념하라고 당부하였다. 거사 역시 더욱 마음을 다잡고 은밀히 수행하였고, 널리 대승을 찬탄하며 정토종을 선양하였다. 거사는 이후 수십 년을 하루같이,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불사라 여기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련거 거사는 제자들에게 전수염불을 통해 일심불란(一心不亂)에 이르는 요령을 '극락암 염불도량에서'란 시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는 구슬 같고, 올라오는 생각은 실과 같아라. 나누어지면 각자 여의고, 합한 즉 꼬치를 이루네. 마음이 부처님과 염을 여의지 않아 실로 구슬을 꿰듯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게 하라. 아직 일심불란이 불가능하면 먼저 염불이 한 덩어리를 이루도록 공부하라. 진실로 부지런하고 전일하면 공부가 효과 있어 저절로 견불(見佛)하리라."


하련거 거사 진영

'무량수경' 대중화한 정종학회 창립

하련거 거사는 쉼 없는 염불정진 틈틈이 정토 경전과 서적의 집필과 간행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32년부터는 불자들이 윤회를 벗어난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믿음, 발원, 염불행의 3자량(資糧)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종 〈무량수경〉의 회집(會集)을 시작하였다.

정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하련거 거사는 1939년 〈무량수경〉 수지독송과 '아미타불' 전수염불을 중심으로 한 신행결사인 정종학회를 창립해 본격적인 염불 홍포에 나섰다. 그동안 개별적으로만 이뤄지던 중국의 염불신행이 체계적인 경전 교육과 단체수행으로 자리잡게 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지구촌에 2백여 지회를 가진 글로벌 단체로 성장한 정종학회는 하련거 거사의 직제자인 황념조(黃念祖) 거사의 가르침을 이은 92세의 선지식 정공(淨空) 법사의 영도 아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염불결사로 자리잡았다.

찬탄 · 관찰 · 발원 · 회향의 염불법 보급

1940년 2월, 하련거 거사는 병고 중에도 간단한 일일 염불수행법을 담은 〈정수첩요(淨修捷要)〉를 만들어 초발심자들에게 전수하였다. 몸으로 예배하고, 입으로 염송하며, 뜻으로 경문을 염하면서 삼업(三業)을 짓는 사이에 한 번 예배할 때마다 자기(自)와 부처님(他)이 감응할 수 있도록 찬탄 · 관찰 · 발원 · 회향을 포괄하여, 망상이 쉽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정념(正念)이 현전하도록 하였다. 이 수행법은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오늘날도 정종학회의 중요한 수행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종학회 회원들의 수행과 외호 아래 하련거 거사는 1946년, 회집본 〈무량수경〉의 원고를 7년만에 완성하였다. 당시 체한(諦閑), 혜명(慧明) 스님 등 고승들의 인증 하에 거사의 자비와 지혜가 응축되어 마침내 〈무량수경〉 회집본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20세기의 걸출한 거사이자 정토수행자로 평가받은 하련거 거사는 〈무량수경〉(선본) 외에도 중요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다. 〈대경합찬(大經合讚)〉 〈정수첩요〉 〈보왕삼매참(寶王三昧懺)〉 〈정어(淨語)〉 〈연종밀초(蓮宗密)〉 〈관음보전삼종합참(觀音寶典三種合參)〉 등 10여 종의 저서가 명저로 손꼽힌다.

정토불서 법보시 당부하며 왕생극락

때는 을사년(1965) 12월 4일, 거사의 연세 83세 되던 해였다. 거사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했다.

"나는 대작불사(무량수경 선본)를 끝마쳤으니 이 탁한 세상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때 거사는 또렷한 정념(正念)을 유지하며 법요(法要)를 열어 보이고, 정토법문의 홍포와 법보시 등의 보시행을 당부하였다.

거사는 열흘 후인 12월 14일에 가벼운 병을 보이더니, 밤중에도 계속 염불을 하였다. 문득 한 차례 큰 소리로 외치는 염불소리를 듣고 모시던 집안 사람이 놀라서 살펴보니, 곧 이 한마디(나무아미타불) 만덕홍명(萬德洪名) 가운데 편안히 왕생하였다.

염불신행 확산으로 중국불교 살아나

하련거 거사의 왕생 이후 직제자인 황념조 거사는 스승의 〈무량수경〉(대경)에 방대한 주해(註解)를 단 〈정토대경과주(淨土大經科註)〉를 편찬하는 등 유업을 이었으며, 정공 법사는 정종학회를 전세계로 확산시켜 〈무량수경〉(선본) 보급에 큰 기여를 하였다. 중국불교가 문화대혁명(1966-1976년)의 암흑기를 지나 새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과 대만을 넘어 중화권에서 정토종이 중흥의 시대를 맞이한 것은 하련거 거사의 〈무량수경〉 회집불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불교가 염불로 되살아나고 있는 현상을 남의 나라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심이 살아나고 불교 중흥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국불교 지도자들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는 입에 염불하며 틈틈이 정토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신행이 요원(燎原; 불타는 벌판)의 불길처럼 일어나길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hcandle.com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1.1~2017.1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쉽게 포기 못하는 이유는?… "본질 명확히 보자"

포기하는 연습

나토리 호겐 지음 | 전경아 옮김 | 세종서적 펴냄
1만 5천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꿈을 이룰 거라는 희망 때문에, 혹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내려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포기하라'고 권하는 책이 나왔다. 일본뿐 아니라 국내 독자들에게도 열렬한 호응을 얻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행동하는 승려'로 알려진 나토리 호겐의 신작 〈포기하는 연습〉이다. 전작 〈신경 쓰지 않는 연습〉서 불안 분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가르침을, 〈모으지 않는 연습〉서 마음 관계 물건서 가벼워지는 가르침을 전한 나토리 호겐이 이 책에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공부법을 알려준다.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 잡념을 걷어내고 평온한 마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물이나 자기 마음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포기하다'는 일본어로 '아키라메루(諦める)', 한자로 '諦(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밝히다(明らかにする)'라는 뜻도 들어 있다. 즉,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뒤에야 깨끗이 포기하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비가 오는 바람에 예정된 행사가 중지됐다고 하자. 그때 행사 가는 것을 포기하려면 '날씨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필 비가 오는 거야" "기껏 준비했는데"라며 끊임없이 불평하게 된다. 다이어트를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하면 자기혐오에 빠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뚱뚱하다고 비웃어도 나는 당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도도 해보지 말고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책은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후회보다 하고 난 뒤의 후회가 더 낫다고, 쉽게 포기할 수 없을 때는 해보는 데까지 해보라고 이야기한다. 실패했을 때야말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기회이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러니 실패했지, 하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면 된다.

나토리 호겐은 자기 사정만 고집하는 것이 '괴로움'을 낳는 불씨라고 말한다. 세상

현실 받아들이는 마음공부법 소개
어디서나 만족 아는 것 최고 행복
"자기사정만 고집, 괴로움의 불씨"

은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날씨도 정치도 경제도 내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내 기분 하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내 사정만 앞세우려고 하면 평생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렇다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기 사정만 앞세우는 태도를 버리면 된다. 그러면 번뇌가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포기하는 연습'인 셈이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길 바란다. 쓴소리나 뼈아픈 지적 말고 칭찬만 듣길 바란다. 그렇지만 내가 "알아주세요" 하고 바라는 것은 다 큰 어른이 응석을 부리는 행위다. 게다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느라 자신이 고생하게 된다. 이럴 때는 반대로 내가 모두를 좋아하려고 해보자. 칭찬만 받으려고 해도 자신감을 잃는다.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 반론하고 싶어지는 까닭은 상대방이 싫어서다. 그럴 때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같은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떠올려보라. 내가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지 비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를 자기 연마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

시대와 환경을 탓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기보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욕심이 나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어" "아직 미련이 남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파고드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고 스스로의 사정을 헤아려보고 그 사정이 이치에 맞는지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불안하면 '무엇이든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지금까지 얻은 것을 잃지 않을까 불안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자신에게 최소 필요한 것은 몇 개나 되는지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라"라는 소욕지족(所欲知足, 욕심이 적으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뜻)을 강조한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만족을 알면 겸허해진다.

우리는 늘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한 것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면 "이걸로 됐어"라는 생각에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자신에게 스스로 "오늘은 이만큼 애썼다" "이 일에 관해서는 이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심신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스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뻔한 내용이 아니다. 나토리 호겐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속마음을 털어놓고, 방을 꾸미려다가 오히려 망쳤던 청년 시절의 이야기라든가 슈퍼에서 빨리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낭패를 봤던 경험처럼 때로는 번뇌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소박한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그의 경험을 따라가며 우리도 그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이나마 홀가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근현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 제시한 걸작

한암의 선사상과 제자들

저자 자현 · 윤창화 외 7인
쿠담북스 펴냄
2만 5천원

〈조선불교유신론〉은 불교 혁신을 통해 조국 근대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짐이자 모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결과물이었다. 그 핵심은 전통 불교의 미신 · 기복 · 은둔적인 성격을 탈피해 불교 본래의 정신, 즉 중생 구제와 자유평등 실현을 회복하는 것, 시대에 맞고 나아가 시대를 선도해 가는 근대 불교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주장이었다. 오늘날 〈조선불교유신론〉이 근대 한국 불교의 개혁 정신을 밝힌 탁월한 저술로 평가받는 이유는,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조선 불교를 총체적 ·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비판을 가했다는 점, 근대 사상과 불교 사상을 토대로 논리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았다는 점,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도 한국 불교가 해야 할 종교 ·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예견한 점 등에 있다. 물론 〈조선불교유신론〉에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당시 교단의 현실 고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 채 혁신에만 조급했다는 점, 승가의 계율 문제를 중추원, 통감부 같은 식민지 권력에 의지해 해결하려 한 점,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조선불교유신론〉은 한국 근현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보기 드문 걸작이며, 한용운이라는 인물 자체가 근대 불교 개혁에 앞장서고 그 실천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열렬한 지도자요 뛰어난 선각자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용운은 중생과 더불어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에 대해 철학적 종교이며 미래에 도덕과 문명의 원천이 될 위대한 종교라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미신적이며 왜곡된 불교를 혁신하고 본래 불교 정신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불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교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자는 차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한 것이다.

〈조선불교유신론〉의 사상적 기초는 참다운 믿음의 대상은 밖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깨달음을 향한 선종 본래 정신을 회복하자는 데 있다. 당시 불교는 너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용운은 부단한 개혁을 촉구했지만, 결국은 중생과 더불어 해탈에 이른다는 선(禪) 불교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야말로 유신의 근본 해법임을 잊지 않았다.

만해는 일본에 잠시 유학하면서 메이지유신을 통해 봉건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급격히 탈바꿈한 일본의 발전상을 목격했고, 일본 불교의 근대적 발전을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온 뒤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했다. 1909년에 집필을 끝냈지만 그 파격적인 주장이 몰고 올 충격과 파장을 의식했던지 출간을 늦추어 1913년 간행한다. 예상대로 승려 결혼이나 의례의 간소화 등 급진적인 주장 때문에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만해가 주장하는 불교 혁신은 상당 부분 올바른 방향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치하의 불리한 정세, 불교계의 보수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인해 〈조선불교유신론〉의 개혁안은 현실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사상적 기초는 선불교정신 회복
"불교는 미래 문명 원천될 종교"

그러나 만해의 정신은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그 핵심은 부처의 중생 구제 정신 실현, 민족의 자주독립과 발전, 불교와 사회의 근대화와 개혁이다. 이러한 면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참다운 정신과 중요성과 현대성, 또 우리 근대 역사가 당면했던 개혁과 발전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조선불교유신론〉은 여전히 개혁과 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날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과거를 통해 시대를 조명하는 거울과 같은 책이다.

미국의 계관시인 로버트 핀스키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동양에, 이렇게 심오한 사상을 지닌 시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게다가 식민지였던 조선에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만해 한용운의 사상과 문학의 깊이에 찬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 만해 한용운의 선구적인 사상을 응축한 결과물인 〈조선불교유신론〉은, 오늘날 우리 종교와 사회에서도 '유신'해야 할 과제들을 끊임없이 되찾고 개혁의 길을 모색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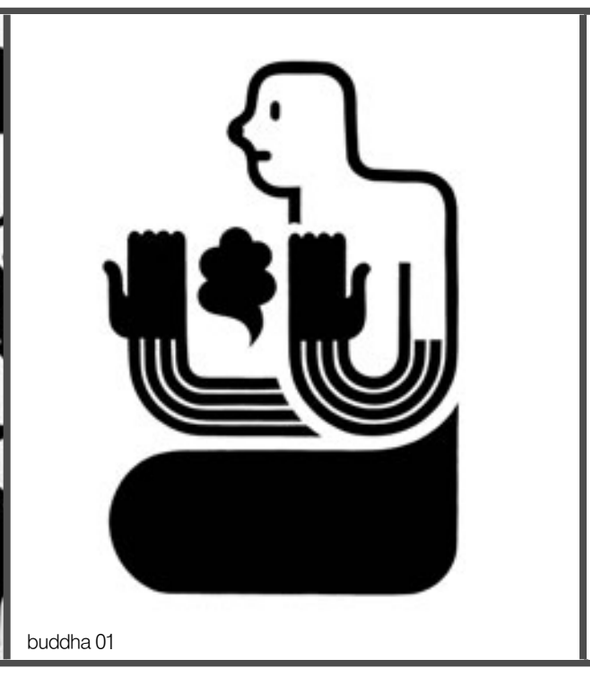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상생공생


buddha 01


Lotus 02


고(苦)

현대 미학으로 승화한 '만다라'

불일미술관, 오숙진 작가 'Manda_la : 명상의 시간' 展

11월 13일까지 연속 개최
티벳사원 내벽 그림 영감
도상 현대화 작업 '눈길'

법련사 불일미술관(학예실장 여서)은 11월 13일까지 2017년 불일미술관 신진작가공모 당선작가 릴레이 전시 일환으로 오숙진 작가의 'Manda_la : 명상의 시간' 展을 연다.

서울대 서양화과와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미술원 회화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오숙진 작가는 대한불교진흥원 콘텐츠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번 'Manda_la : 명상의 시간' 展은 오 작가의 불교적 심상이 잘 드러나는 예술작품이 선보인다.

계기는 인도에서 만난 티벳불교의 독특한 미학적 감성충격이었다. 인도 북동부 다르질링의 티벳 불교사원을 방문했던 오숙진 작가는 사원 내벽에 그려진 도안에 젊은 승려 몇몇이 채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원의 내벽에 그려진 그림은 형태와 색채가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오랜 시간 반복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창의적인 미술보다는 보존 전승되는 모습을 보여 오숙진 작가에게 아쉬움으로 작용했다.

이미 만들어진 도안을 옮겨 그리고 채색하는 과정은 창의적인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예술가라기 보다는 오히려 장인에 가깝다고 여긴 오 작가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1세기의 조형언어로 불교의 철학 세계를 이미지화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현실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성격을 생각하더라도 불교 도상을 현대화하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런 오숙진 작가의 작품은 만다라의 도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왜 하필 불교 도상에 관심을 갖느냐고 묻는 질문에 오숙진 작가의 대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오 작가는 "누구나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그 고민이 삶의 본질,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뻗어 나갔고 결국은 붓다를 만났다"고 했다.

불교는 수천 년 전 붓다의 말씀으로 출발하였지만 지금도 그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의 철학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철학적 인문학적 차원에서 불교에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기대어 각자의 답을 찾아 나간다. 오숙진 작가 역시 무상(無常), 연기(緣起), 고집멸도(苦集滅道) 등 불교의 핵심 화두를 묵상하고 현대의 조형언어로 풀어냄으로써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2015년 무상(無常)이라는 화두에서 출발한 'Manda_La' 시리즈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서 2017년 작업에서는 붓다의 핵심 철학과 함께 붓다의 21세기적 도상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일상속 불교철학으로서, 개별적으로는 각자의 삶을 사색하는 명상을, 함께하는 삶으로서는 상생과 공생을 모색함으로써 불교철학과 삶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점이 오숙진 작가의 전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02)733-532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템플스테이 아시아 여행객 사로잡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0월 27~30일 '대만 국제여행박람회' 참가


10월 29일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대만 국제여행박람회(Taipei International Travel Fair)에 참가해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설명회를 진행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연꽃지화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템플스테이 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약 36만 명의 관람객이 참가했다.

특히 10월 29일에 진행한 대만 여행업계, 여행박람회 참가자 대상 설명회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에 맞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5개 사찰(월정사, 삼화사, 낙산사, 신흥사, 백담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만 국제여행박람회는 1987년부터 열리기 시작해 올해 30년째 열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여행박람회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여행박람회 참가를 통해 템플스테이 인지도를 넓히는 한편, 현지 여행사와 여행협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다양한 템플스테이 여행코스를 출시하는 등 중화권 참가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한국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포함된 성지순례형 여행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기와 색 입히며 불심 증장 계기 만들어요"

옥천사성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눈길

옥천사성보박물관(관장 원명)은 11월 17일부터 박물관 강의실에서 하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기와에 색을 입히다'는 제목으로 개축이나 보수 등으로 사찰의 전각지붕에서 내려온 기와를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11월 17일과 18일, 24일과 25일 4일간 진행되며 일종의 정크아트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와 함께 12월 15일과 16일에는 겨울, 새해소망을 담아서 만들어보는 소원등만들기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공주박물관 '백제의 불교미술' 특별전

11월 7일부터 내년 1월까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이 11월 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상설전시관 재단장을 기해 '백제의 불교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제의 불교 수용 과정 및 불상, 탑 조성에 대한 백제 불교미술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전은 프롤로그 '삼국시대 불교 전래', 1부 '백제, 불교를 수용하다', 2부 '불상을 조성하다', 3부 '사찰과 탑을 조성하다', 에필로그 '백제불교미술의 특징과 계승' 등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시전에서는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이 2002년 국립경주박물관 전시 이후 두 번 째로 전시된다.

노덕현 기자





저 절로 가는 길
㉒ 청량사 가는 길

가을산서 불교정신이 날개를 펴다


청량사 오층석탑


불꽃나무같은 단풍나무

• 걷는길 : 입석 – 응진전 – 어풍대 – 김생굴 – 자소봉 – 탁필봉 – 연적봉 – 자란봉 – 뒤실고개 – 청량사
• 거리와 시간 : 8km 안팎으로 3시간


단풍에 둘러싸인 청량사. 예로부터 문수보살의 기운이 서린 곳으로 이름이 높았다. 억불숭유의 정책에서도 '청량' 이란 이름을 지킨 이유다.

인도의 옛 도시 라즈기르, 왕사성이라고도 부르는 이 도시를 다섯 봉우리의 산이 둘러쌌다. 오대산이다. 월정사가 있는 강원도 오대산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어떤 이는 주장한다. 오대산은 청량산으로도 부른다. 이름이 다르지만 근본을 따지면 문수신앙이란 같은 갈래에서 나왔다. 문수산, 길상산, 오대산, 청량산, 사자산도 각각 이름과 위치가 다르지만 문수보살이라는 같은 문화적 갈래에서 나와 공간적으로 확산된 산이다.

문수신앙이 널리 퍼진 우리나라는 오대산의 원래 이름인 청량산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 경북 봉화의 청량산, 인천 청량산, 경기 안성 청량산, 남한산 청량산, 경남 창원 청량산, 전북 완주 청량산, 고창 청량산이 그것이다.

청량리 유곽들이 헐리고 그 자리에 초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다. 물론 손꼽는 명산이라는 봉화 청량산도 산불이 나서 순식간에 폐허로 변할 수 있다. 실제로 청량산 청량사가 폐사됐던 전력이 있으니, 퇴계 이황이 노래한 '청량산가' 와 더불어 무상을 실감할 뿐이다.

청량산 열두 봉우리(六六峯)를 아는 이
나와 흰 갈매기뿐
흰 갈매기야 말하겠느냐
못 믿을 것이 복숭아꽃이로다
복숭아꽃아 물 따라 가지 마라
배 타고 고기 잡는 이 알까 두렵구나.

청량산이 세상에 알려져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 자신이 누리는 즐거움이 사라질까 염려한 이황의 시도 불타오르는 우리나라의 가을을 극복하진 못했다. 가을이면 세상의 모든 산이 단풍으로 물들지만 청량산의 가을 단풍처럼 눈이 부시지 않기 때문이고, 그걸 알고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황의 청량산 사랑은 그의 호 '청량산인' 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청량산에 자주 올랐던 건 에베레스트에 오른 힐러리처럼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청량산이 가문의 산으로, 5대 고조부 이자수가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나라로부터 받은 봉산(封山)이었다.

이황은 부패하고 문란한 조정과 싸우는 대신 초야에서 학문에 몰두했다. 그런 그에게 조정은 기이하게도 중요한 관직을 차례차례 하사했다. 정권의 고비 때마다 그랬고, 그랬기에 조정과 초야의 청량산을 큰집과 작은집 드나들 듯했다. 이황은 도산서원을 마련하기 전까지 '청량정사' 라는 집을 지어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청량사 부근에 남아 있다.

청량산이 퇴계학의 성지로 후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연유이다.

이황이 청량산에 빠져 살았을 무렵 청량사는 어땠을까. 청량사는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절들이 그렇듯이 창건주가 원효 대사라고도 하고 의상 대사라고도 하는 절이다. 당시 33개의 부속건물을 갖춘 대사찰이었으나 조선조에는 유생들의 탄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유리보전(琉璃寶殿)과 응진전(應眞殿)만 겨우 살아남은 폐사로 전락했다. 청량사가 그나마 명맥을 이은 건 송광사 16국사의 마지막 스님인 법장 고봉선사의 중창 덕분이었다.

입석에서 등산로를 따라 30분 정도 오르면 절벽에 기대앉은 응진전을 만난다. 절벽의 담쟁이가 타들어가는 밧줄처럼 붉었다. 전각에 가까이 가니 열린 문 사이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영정이 보인다.

보라, 6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의 사랑은 응진전을 배경으로 단풍처럼 타오른다. 그 어

문수보살 기운서린 성산
장인봉은 보살봉으로 불려
가을명소 속 불교명찰 눈길

떤 사랑도 신화가 될 수 없는 요즘 세태 때문인지 응진전을 떠나는 발길이 무거웠다.

산안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천히 계곡을 떠다녔다. 그 모습이 경상도 한량들이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추는 학춤 닮았다. 안개가 끼지 않는 날, 어풍대에서 김생굴 사이에서 V자를 그리는 골짜기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깊고, 벼랑에 뻗어내린 울긋불긋한 단풍까지 더해져 지독한 현기증을 불러일으킨다.

김생굴은 통일신라 서예가인 김생이 수학했던 바위굴로 경일봉 아래 있다. 평민 김생은 이 굴에서 10년 동안 글씨를 연마했다. 김생굴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김생체의 힘찬 기운을 담은 폭포가 벼랑을 타고 떨어진다. 신분을 극복한 당대의 명필 김생이 쓴 불경 40여 권을 청량산 연대사(蓮臺寺)란 절이 보관했었는데, 어느 땐가 수수께끼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청량산에는 김생 말고도 신라의 최치원과 관련된 유적이 산재한다. 최치원이 수도했다는 풍혈대,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를 마시고 총명해졌다는 총명수가 그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총명수는 내려다보기조차 민망한 탁류로 변해버렸다.

청량산은 안개가 자주 출몰하는 산이다. 주세붕이 쓴 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에서 '수목과 안개가 서로 어울려 마치 그림 같은 풍경' 이라고 묘사했거니와, 자소봉으로 오르는 산길은 올 때마다 항상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에 넋이 팔려 길을 잃은 듯 걷다 보니 어느새 자소봉 앞이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철계단을 밟아 보살봉이라고도 부르는 자소봉에 올랐다. 북쪽으로는 소백산이 있는 백두대간이 시야에 닿고, 동으로는 일월산, 남으로는 축융봉이 마주 보이는 봉우리이다. 일찍이 주세붕이 묘사한 풍경도 고스란히 발아래 펼쳐진다.

줄지어 선 봉우리는 물고기의 비늘과 같고, 층층이 늘어선 벼랑은 꼿꼿하기만 하여 정녕 단아하고 곧은 선비와 같다.

응진전이 있는 금탑봉, 김생굴이 있는 경일봉뿐 아니라, 공민왕이 쌓은 청량산성이 있는 축융봉, 의상이 수도했다는 장인봉, 외장인봉, 자소봉, 선학봉, 자란봉, 연화봉, 연적봉, 향로봉, 탁필봉 등 '육육봉' 이라 부르는 12개 봉우리의 이름을 주세붕이 모두 지었다. 퇴계 이황과 더불어 주세붕을 빼놓고 봉화 청량산을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유감스러운 건 이데올로기가 자연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주세붕은 불교를 극도로 혐오하여 불교적인 징표를 드러냈던 봉우리 이름을 모조리 유교식으로 바꿔버렸지만, 산 이름 자체는 개명하지 못했다. 문수보살의 청량산은 보현보살의 아미산, 관음보살의 보타낙가산과 함께 인도의 대표적인 성산으로 꼽는다.

풍기 군수 주세붕이 문서에서 모조리 지워버렸어도 사람의 입은 여전히 장인봉 대신 의상봉, 자소봉 대신 보살봉이라 불러 불교를 상기한다.

자소봉에서 잠시 쉬고서는 탁필봉으로 건너갔다. 거대한 입석들이 삐죽삐죽 돋아난 봉우리다. 생긴 모습이 붓끝을 모아 놓았대서 필봉이라 하는데 역시 주세붕이 지은 이름이다.

탁필봉에서 연적봉을 거쳐 뒤실고개 쪽으로 향한다. 뒤실고개 능선에서 직진하면 하늘다리가 나타나고, 왼편으로 하산하면 청량사 코스다.

뒤실고개 능선을 지나면 자란봉이다. 자란봉 건너편은 선학봉, 이 두 봉우리 사이에 하늘다리가 놓여있다. 2008년에 완공된 청량산 하늘다리는 길이가 90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현수교량이다. 등산객들이 몰리는 가을에는 아무리 조심스레 걸어도 다리가 출렁거리고, 그 바람에 하늘다리 위에서는 비명과 웃음이 그칠 새 없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다리는 하나의 선택이다. 멀리서 온 외지인이라면 하늘다리 앞에서 선택은 하나 더 늘어난다. 하늘다리를 건너 선학봉과 장인봉을 가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금 길을 권하겠다. 순전히 불교순례를 위해 청량산에 왔다면 되돌아서 청량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물론 청량산에서 가장 높은 장인봉에 오르면 도도히 흐르는 낙동강 줄기를 눈에 담을 수 있다.

선택은 나도 해야 했고, 나는 청량사를 향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청량사가 열두 봉우리로 둘러싸여 연꽃의 꽃술 자리에 자리 잡았다는 비유를 어디서 들은 것도 같다. 청량사는 내청량사와 외청량사, 두 곳으로 나눠 부른다. 내청량사는 연화봉 아래 유리보전이 본전이고, 외청량사는 금탑봉 아래 응진전이 본전이다. 이 두 절은 꽤 거리를 두고 떨어진 건, 그 사이에 있던 전각들이 역사적 시련을 겪어 폐사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을이다. 2012년 가을, 청량산이 가을의 명소임을 청량사도 아는지 사중 곳곳에 심어 놓은 단풍나무가 불꽃나무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의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남의 행동을 쉽게 판단해 갈등이 생깁니다.

자신의 관점서 판단을 내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의견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의견을 내려놓으면 상황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속에 답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 사이다'

⑨ 비워야 살고 막히면 죽는다

'적당한 소유' 알면 마음 비우기도 쉽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만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찼을 때 보다 오히려 더 충만하다."

-법정스님의 수상록 〈텅 빈 충만〉 中

중국의 선종사(禪宗史)에 마조 스님의 법을 이은 방거사(龐居士)라는 인물이 나온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호였는데, 어느 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배에 싣고 호수에 나가 미련 없이 버렸다. 그리고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딸과 함께 평생 수도생활을 하였다. 그의 어록에 이런 게송이 실려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나는 순간의 고요를 즐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요 속에 본래의 내 모습 드러난다."

소유와 경쟁의 시대라는 물질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쁜 숨을 쉬며 지쳐만 가는 것 같다. 이럴 때 오래 전 선사(禪師)의 말씀을 듣게 되면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들이 마음의 수면위로 떠오르며 자각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비우고 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들은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삶일까? 아니면 최대한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과연 적당한 소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것을 위한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이다. 비우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

장이 막혀 화장실에서 볼일을 못 보면 아주 괴롭고 문제가 생긴다. 우리의 땀구멍 숨구멍 등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막히면 질병이 생기도 결국 죽는다. 뚫려있고 열려있어야 흐르게 되고 그것이 삶을 유지시켜준다. 스마트폰에 앱이 많이 깔려 있거나 다운받은 콘텐츠가 많으면 용량 초과로 사용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

또한, 우리들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정작 좋은 생각들이 가려져 많은 생각들 모두 쓸모가 없어진다.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한 생각이 더 쓸모 있는 법이다.

텅 비어있는 상태는 우리의 삶에서 생존과 번영 그리고 영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空)이라고 한다. 텅 비어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로 꽉 차있는 상태이다. 전문용어로는 진공묘유(眞空妙有)라 한다.

이러한 텅 빈 충만의 상태인 공을 체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보편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관겸수(止觀兼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로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지관겸수는 그치고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그치는 '지(止)수련'과 보는 '관(觀)수련'을 겸해서 닦는다(兼修)는 것이다. 그리고 정혜쌍수는 지관겸수의 결과에 해당한다. 선정을 의미하는 정할 정(定)과 슬기로움 혜(慧)를 동시에 닦는다(雙修)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지(止)와 정(定)은 멈추고 집중하는 수련이다.

이를 통해 선정에 들면 번뇌망상이 없는 고요

> 어렵고 깊은 수행법 아니라도
> 일상생활서 쉽게 꼬 체험 가능
> '텅 빔'에서 오는 충만감 느껴
> 마음에 깨끗함 · 안정 찾아와

한 삼매의 상태가 된다. 이를 통상적으로 사마타 수련 또는 집중명상이라고 한다.

또한 관(觀)과 혜(慧)는 관찰하는 수련이다.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지혜가 계발되는 상태이다. 보통 위빠사나수련 또는 통찰명상이라고 한다. 근래에는 마음챙김명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집중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청정도론(淸淨道論)과 오정심관(五停心觀)으로 알려져 있다. 청정도론에서는 호흡과 몸과 마음을 비롯해 40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는 오정심관이라하여 5가지 번뇌의 장애를 가라앉히는 명상법으로 부정관 명상(不淨), 자애명상(慈), 연기관 명상(緣性緣起), 요소 구별 명상(界差別), 호흡명상(阿那波那念)등이 전해진다.

통찰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인 마음챙김은 신수심법(身受心法)을 관찰하는 수련법이다. 관찰 대상에는 몸 · 느낌 · 마음 · 법(身受心法)의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4가지 대상은 간단하게 육체적인 현상(色)과 정신적인 현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몸을 관하는 것을 신념처(身念處)라고 하는데, 14가지 육체적인 현상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을 수념처(受念處)라 하며 고(苦)와 락(樂) 그리고 불고불락(不苦不樂)의 3가지 육체적 정신적인 느낌(感受)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마음의 현상에 대한 마음챙김을 심념처(心念處) 라고 하며 16가지 마음 상태를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법념처(法念處)는 깨달음을 위한 최종의 상태인데, 육체적 정신적 현상을 포함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며 공(空)과 법(法)의 상태를 관찰하는 궁극적인 마음챙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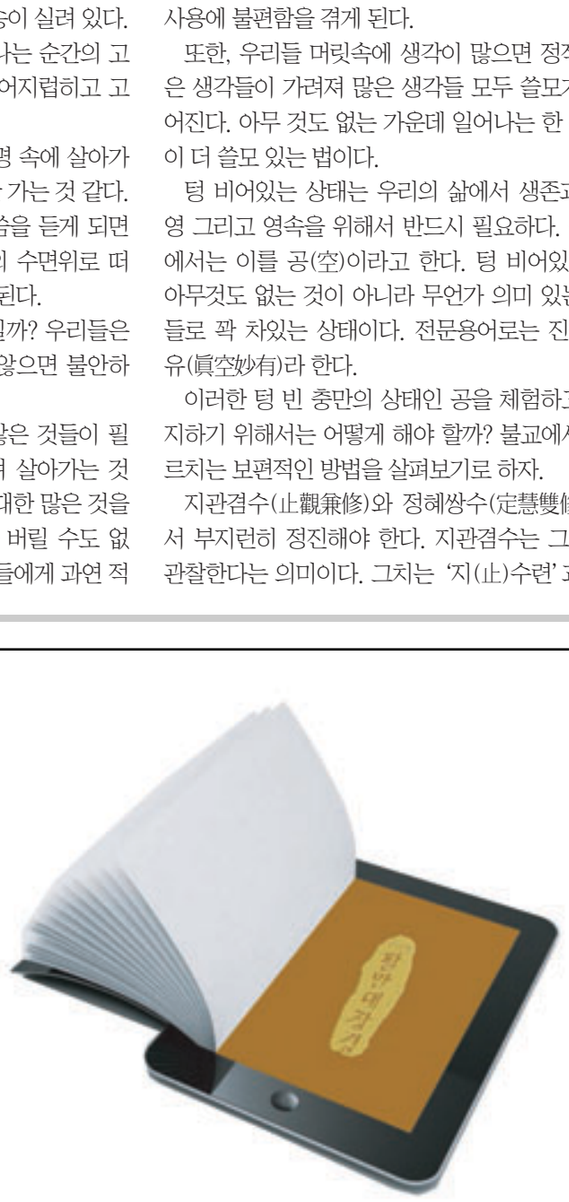
스님들께서 쓰신 책의 제목에서 위에 살펴본 '공'과 '지관겸수(정혜쌍수)'에 대해 팁을 얻을 수 있다.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과 정목 스님의 〈비울수록 가득하네〉는 참된 공의 상태인 '진공묘유'의 이치를 알 수 있다. 또한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는 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지관겸수를 뜻하고 있다.

어렵고 깊은 수행법 말고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을 체험할 수 있다.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청소를 하면 내 마음도 가지런히 정돈이 된다. 목욕을 하면 내 마음도 깨끗하게 씻긴 듯하다. 뭔가 가벼워지고 편안하고 깨끗해진 상태도 일상생활에서의 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텅 빔을 통해 채워지는 충만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스님의 〈텅 빈 충만〉의 글을 소개하며 갈음하겠다.

"숲은 나목(裸木)이 늘어가고 있다. 응달에는 빈 가지만 앙상하고, 양지쪽과 물기가 있는 골짜기에는 아직도 매달린 잎들이 남아 있다. 때가 지나도 떨어질 줄 모르고 매달려 있는 잎들이 보기가 민망스럽다.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산뜻하게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빈자리에 새 봄이 움이 틀 것이다."

한 해가 가고 곧 새로운 해가 올 것이다.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의 불필요한 것들을 남김없이 비우고 버려보는 건 어떨까?



읽고 들을 수 있는
『우리말 팔만대장경』
스마트폰 앱으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갑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법공양 대불사에 함께할 도반을 모십니다.
www.kybu.org | T. 02738-1920 | KB 국민은행 023501-04-010964 대한불교청년회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대한불교 원효종
중앙 종회의원
당선자 확정공고

당선자 명단

부산교구 : 효산. 현수. 자안
울산교구 : 지광. 운오. 범일
제주교구 : 법원. 향봉. 성호
직할교구 : 석해. 정운
전남.북교구 : 경오. 마명
경남교구 : 자광. 지안
사단법인단체 : 청암

2017년 11월 3일부로 중앙 종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3일

선거 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관리위원 : 현수 무공 정운 법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전화 054) 743-0700 팩스 054) 741-9002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불교TV

월도스님과 함께하는

BTN 즉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월도스님의 즉문즉설!!! 슈퍼 그레잇~
ID : 내 인생의 그레잇

꽈~~악 막힌 가슴
이제 즉문즉설로 한방에 해결하세요!!
ID : 두통엔~ 월도스님

차원이 다른 고민해결, 믿고 보는 즉문즉설
이것이 바로 클래스!!
ID : 호날두 말고 월도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22:00, 수 01:00, 금 07:30

월도스님 검색 네이버 밴드에서도 월도스님을 만나보세요~!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U+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YESGOOD.CO.LTD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성지순례는 역시 마하연 입니다!

미얀마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부처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인도네팔 "품격 성지순례" 출발 확정!



인도성지순례의 정석,
마하연과 하면 역시 다릅니다.



신비스러운 불교왕국 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티베트 8일 성지순례
하늘길 칭짱열차 체험
인천-서안-라싸-암드록초-장체-시가체-라싸-칭짱열차-서안-인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4대불산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 6일
대만
불광사 공승 대법회(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